

# 신협에서 하세요 행복!

아침 운동이든  
내 집 마련 계획이든  
든든한 노후 준비든  
뭐든지 하는 만큼 행복해질 거예요



신협 모델  
조보아



# 공모전용 무한잉크 포토프린터

11R= 



- 정품무한잉크**  
잉크병 이미지
- 4x6 2,100장** 출력가능  
엡손자료(L8050, L18050)
- Wifi**
- 출력속도 27초** (4R기준)  
엡손자료(L8050, L18050)

용도	모델명	최대출력크기	정품무한잉크	협회 회원 특가	조건
공모전용	L18050	~ A3w(13inch)	6색 70ml	495,000	용지 5만원 함께 구매시 (용지선택자유)
개인용	L8050	~ A4w(8inch)		345,000	
A3 복합기	L8180	~ A3w(13inch)	6색 흑백특화	609,000	-

신지 스튜디오클럽은요! (프린터 구매시 사진관 가격으로 잉크&용지&액자 구매 가능)

<b>포토프린터&amp;정품잉크</b>  사진관 전용 가격 제공 최대 30%할인	<b>원목액자</b>  Natural, Brown 11R=6,600원	<b>사진용지</b>  사진관 전용 가격제공	<b>축제·행사 장비대여</b>  1분 출력 촬영 즉석출력 현장에서 바로
--	--	---	--

## 제63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우수회원상 추천 공고

사진예술 발전에 헌신한 작가 및 단체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사진문화상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63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우수회원상 후보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분야

- 공로상** : 20년 이상 사단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술, 교육, 평론, 창작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 작품상** : 당해 연도 회원전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회원. 단 최근 5년간의 작품을 고려한다.
- 출판상** :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출판물(단행본, 작품집, 정기간행물, 기타) 을 저작한 사람 또는 단체. 단, 출판물은 최근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한다.
- 특별공로상** : 사단에 헌신하여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 발전공로상** :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광역 시도 지회 및 지부 중 6개 이내의 단체
- 회원표창** : 지회·지부에서 추천하며 한 해 동안 지회·지부 및 협회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지대한자 (지회·지부장, 임원 추천서 필수)

### 마감일

2025년 1월 17일(금) 협회 도착분에 한함

### 진행절차

- 접수 된 추천서에 대하여 한국사진문화상 제6조에 의거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상자 선정
- 선정된 수상자는 2025 PASK AWARDS에서 시상 예정



최은철 신년희호

〈忠恕〉총서

45×74cm, 한지에 먹, 2025

선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내게 싫은 일은 남에게도 베풀지 않는다.

을사원단(을사년 새아침) 고산 최은철 서



古山 崔銀哲(고산 최은철)

동양미학 박사(성균관대)  
 (사)K-문화연대 대표  
 (사)한국예총 동북아국제교류위원장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술감독  
 (사)한국전각협회 부회장  
 (사)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성균관대유학대학원 강사  
 고산서예실 주재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80, 310동 1201호  
 010-227-3222 gosan5188@naver.com

# Contents

January 2025 Vol.534

Cover Story



박해섭(제주지회) - 희망

- 03 **Headnote**  
새로운 도약의 원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 찬
- 28 **전시광고**  
Photo Art Korea展  
Time Story - 사진 속 시간 이야기
- 32 **전시광고**  
아들리에21 개관 기념사진전 Light & Moment #3  
흰 밤을 지새다 - 김민주(구미)
- 36 **특집 -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리뷰**  
01-개전식  
02-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 및 청소년사진제 시상식  
03-장학금 수여  
04-특별전  
05-이모저모
- 62 **지상전 1**  
어둠 너머 새벽 빛 알리는 신성한 새  
꼬꼬의 화려한 자태 - 최차열(서산)
- 66 **지상전 2**  
태어난 그대로의 알몸 신에 바치노니  
나는 '나가사두'다 - 박경서(중구), 박용득(구미), 이내교(송파구)
- 72 **Photo Essay 01**  
비현실적 공간에서, 생명이어 호흡하라  
Dream of House - 이석준(송파구)
- 76 **지상전 3**  
시궁창 약취 속 하얀 미소 피어난다  
케냐 나이로비 빈민촌 키베라 - 이정근(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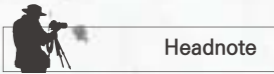
28



62



72



Headnote

## 새로운 도약의 원년

존경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진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새해를 맞아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은 우리 협회가 더 높이 도약할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사진 진흥법 제정'이라는 사진계의 오랜 숙원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진 예술이 가진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진 문화의 저변 확대라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사진 예술을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내외 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사진 예술계의 중심에서 우리 협회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 여러분이 더 나은 창작 환경과 풍부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대내외적인 환경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착실히 실행하며, 사진 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저와 집행부를 믿고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보내주시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 찬

# Contents

January 2025 Vol.534



76

84

90

- 80 **Photo Essay 02**  
조물주의 그림일까, 자연의 선율일까  
월출산 암봉능선 - 박곡희(여수)
- 84 **Review & Preview**  
종이책 디자인의 전설을 만나다  
슈타이들 북컬처 : 매직 온 페이퍼 - 김재훈

### 사진강좌

- 90 **Photo Theory**  
툰 호수 바라보며 창작 아이디어 얻는다  
파라디슬리 아티스트 레지던시 - 김정현
- 94 **Travel destination**  
허물 벗고 사는 생명력 VS 맹독 가진 죽음의 신  
두 얼굴의 뱀 - 최승언

### 협회소식

- 98 **Society News / Member Plaza**  
분과위원회, 협회소식, 회원동정 외

### 업계소식

- 108 **Gallery**  
Time Story - 사진 속의 시간 이야기 외

**정기구독 1년 10만원**  
계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ID : kpassk / PW : kpassk



## 한국사진

www.pask.net  
발행인 | 유수찬  
퍼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assk / PW : kpassk  
퍼낸날 | 2025년 1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위원장 | 백만중  
출판팀장 | 손석운  
출판위원 | 김명옥, 박경서, 이정용, 최영태, 황길연  
사무처장 | 김형준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5기 모집

(2025년 3월 개강 예정 /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신청 자격요건

1. 비회원의 경우 : 본 협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
2. 회원의 경우 : 사진전문교육 수업을 희망하는 자

### 모집인원

50명 이내(선착순 마감)

### 교육과정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대면 및 온라인 강의 진행  
: 1학기, 2학기 과목은 최종 교육과목 조율에 따른 결정 후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예정

수강기간 (단, 협회 상황에 따라 개강 및 종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1학기 개강 2025년 3월 ~ 7월 예정 (단, 본 협회 긴급 행사 시 변경될 수 있음)  
2학기 개강 2025년 8월 ~ 12월 예정  
졸업전시회 2025년 12월 예정

### 수강방법 및 수료조건

사진예술 아카데미 강의실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 진행  
졸업작품전시 필수 참여  
출석 80%이상 참여

학기별 수강료 : 1학기당 일금 3,000,000원 (2학기 총 6,000,000원)  
카드납부 가능

입금계좌 : 국민은행 878301-01-289114, 예금주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금기한 : 2025년 3월 개강 이전까지

###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5기 강의장소 안내

#### 이론수업

1. 목동, 예술인회관 9층 강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2. 크리틱 및 실습수업 장소는 추후 공지

#### 실습수업

1. 추후 공지예정
2. 출사 (상황에 따라 조율)

### 신청 및 문의

전화 문의 02-2655-3131

이메일 문의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이론수업 시 부득이 대면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병행(zoom)  
모든 강의 종료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수강 가능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 사진작가과정 제5기

The PASK Master Course of  
Photography Art 5th

제 62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회원작품 시상전

접수마감 2025년 1월 17일(금) (도착분)

- 작품내용** 8"×10"(자유작)  
**출 품 수** 1인 2점 이내  
**참가자격** 2024년 12월 31일 기준 협회 정·준회원  
**시 상** 전국회원작품시상전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우수작품상 수상자 선정  
 ① 출품인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명을 선정  
 ② 출품인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 1.5%를 선정
- 접수기간** 2025년 1월 17일(금) (도착분)  
**출 품 료** 1인당 40,000원 (최고급 작품집 증정) - 작품집은 소속 지회·지부로 발송  
**접 수 처**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목동, 예술인회관) 1701호 한국사진작가협회  
**파일접수** 이메일 koreapask@daum.net  
 ※작품접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한 지회·지부를 통해 일괄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개별접수도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화문의** 02-2655-3131~3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회원명, 지회·지부명, 주소, 연락처, E-mail을 필히 기재 후 부착하여 제출 할 것.  
**특 전** 수상자는 2025년 PASK AWARDS에서 시상하고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1점을 부여, 수상작품은 월간 한국사진에 작품 게재
- 기타사항**  
 · 작품은 발표, 미발표 작품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수상작은 미발표작에 한하여 선정함  
 · 발표작을 미발표작으로 기재하여 선정이 될 경우 상권을 취소하며 문제작으로 분류 조치함  
 · 파일로 접수하는 경우 작품집에는 수록되나 우수작품상 심사에는 미포함  
 · 작품 접수와 동시에 출품자명으로 출품료를 송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작품은 회원 작품집에 수록되지 않음

※ 입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878301-01-290242 예금주:(사)한국사진작가협회

PASK 국제 사진 공모전  
KOREA PASK 2025

PASK(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사진공모전 2025'를 개최합니다.



President  
Choi Cha Yeol  
최차열



Chairman  
Bae Taek Soo  
배택수

응모분야

(5개 분야)

- 1) Open Color - 컬러사진 자유작, 합성 등 가능
- 2) Open Monochrome - 흑백사진 자유작, 합성 등 가능
- 3) Nature, Landscape - 자연, 풍경사진으로 보정 및 합성 불가
- 4) World in focus(Photo travel) - 일반적인 여행사진, 연출된 사진 불가
- 5) Portrait, Life - 인물 혹은 일상 생활사진, 연출 가능

**출품작품수** 각 부문당 4점씩 총 20 작품 출품 가능 (중복출품 불가)

**작 품 규 격** 가로 1,920픽셀 이하, 세로 1,080픽셀 이하, sRGB, 300dpi, 2M 이하

**출 품 료** 외국인(30\$, Paypal로 입금), 한국인(40,000원 국내은행 입금)

**수 상 내 역** 각 분야 별로 금, 은, 동, 가작 등등 모두 약 180여 작품의 입상

공모전 시간표

- 작품 접수 시작** 2025년 2월 1일  
**작품 접수 마감** 2025년 3월 8일  
**심 사 일 시** 2025년 3월 10~22일(3월 22일 화상회의)  
**결과 발표 & Report Card 발송** 2025년 3월 25일

심사위원

이춘우 외 5인 : 외국 심사위원 3인, 한국 심사위원 3인

- **Chun-Woo Lee** (South Korea)  
: MPASK(한사전 추천작가), EFIAP/g, MPASA, GPU VIP5
- **Florentino Molero** (Spain)  
: EFIAP/g, GMPSA/b, GPU CR5, VIP5
- **Gottfried Catania** (Malta)  
: GMIAAP, AFIAP, EPSA, GPU CR5 VIP4,
- **JEONGSOO KO** (South Korea)  
: EFIAP/s, PPSA, GPU CR2
- **Vladimir Jovanovski** (North Macedonia)  
: DIAAP, MPASA, KMF NPUM, GPU CR3, RISF-5
- **Yoo Byung Yong** (South Korea) : MPASK



Florentino  
Molero



Gottfried  
Catania



vladimir  
jovanovski



고정수



유병용



이춘우

국제적인 사진 단체에서 승인

- FIAP(2025-107) : 국제사진예술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 Art Photographic)
- GPU(L250017) : 국제사진연합(Global Photographic Union)
- IAAP(2025-055) : 국제예술사진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t Photographers)
- PASK(2025-001) : 한국사진작가협회

# 장학기금관리위원회 기금모금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 우리 협회가 이 만큼 발전하였고 명실상부한 사진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회에서 전개하는 여러 활동 중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장학사업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의 설립으로 까지 이어간다면 사진예술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협회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1계좌 갖기 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학금 기탁을 통해 장학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 함께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심 재 안

## 장학기금 관리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

- 350만원 이상 기탁자는 운영위원으로 위촉 가능
- 이사장의 위촉패 수여
-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짐

### ② 자문위원단

- 200만원 이상의 기탁자
- 이사장의 위촉패 수여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단 회의 참여 가능

### ③ 참여위원단

- 100만원 이상의 기탁자
- 이사장의 위촉장 수여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참여위원단에 참여 가능

### ④ 10만원 ~ 100만원 미만

- 이사장의 감사장 수여
- 위원장의 감사장 수여

### 〈전체 사진작가 1계좌 갖기 운동〉

1계좌를 100,000원으로 하여 장학기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송고한 마음이 모여 후진들을 위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학기금 계좌 국민은행 293201-04-258248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운영위원을 모십니다.

장학기금을 관리하고 심의 집행하기 위한 장학위원회의 운영위원을 모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협회의 장학사업이 커지고 재단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제30대 우수찬 이사장 3,000만원 기탁

2025년 1월 01일 기준

### ■ 2023년 장학금 기탁

한재원 이사 1,000만원  
홍창일 고문 500만원  
황일영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500만원  
이순희 장학위원 500만원  
이항룡 부이사장 300만원  
김서윤 이사 30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20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1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장창근 이사 3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30만원  
박정순 종로구지부장 100만원  
권영익 이사 10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한복래 남양주지부 회원 20만원  
이덕만 본부감사 100만원  
윤홍선 전)이사 100만원  
이상영 이사 400만원  
이연화 꽃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복수 이사 30만원  
류중석 의왕지부 회원 100만원  
박경서 이사 100만원  
설병갑 이사 10만원  
정연수 이사 20만원  
정홍재 구미지부장 10만원  
백승의 장학위 감사 35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이병화 장학위 부위원장 350만원  
김정금 이사 500만원  
백만중 부이사장 150만원  
이재수 이사 50만원  
황양운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오종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서효석 이사 100만원  
김경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김명주 구미지부 회원 1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오만태 이사 10만원  
정연식 전주지부 회원 3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김형준 본부 사무처장 100만원  
윤영녀 디지털아트분과위원장 350만원  
윤보상 이사 50만원  
김병주 본부 사무처 과장 10만원  
이상희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안영민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김요한 본부 사무처 30만원  
배택수 상임이사 100만원  
이성길 산악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영태 이사 30만원  
강동구지부 50만원  
이홍기 이사 30만원  
조동희 강동구지부장 20만원  
장일미 평택지부장 200만원  
김옥진 이사 30만원  
김양호 이사 30만원  
강중관 부산지회장 30만원  
윤판문 이사 50만원

김정이 부산지회 부회장 10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감사 10만원  
신종천 홍보위원회 위원 10만원  
김팔영 광주지회 부회장 10만원  
노연섭 순천지부 회원 10만원  
김재업 이사 100만원  
최차열 부이사장 100만원  
이준택 전북도지회 감사 30만원  
김동욱 순천지부장 30만원  
이내교 이사 100만원  
박승호 이사 50만원  
김윤정 이사 100만원

### ■ 2024년 장학금 기탁

심재안 장학위원회위원장 1,000만원  
최임순 이사 500만원  
임병훈 서울지회 부회장 200만원  
황길연 이사 200만원  
이재운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조월신 이사 100만원  
권선자 드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성록 이사 100만원  
김윤식 운영자문위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10만원  
최연근 이사 10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1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장창근 이사 3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30만원  
박정순 종로구지부장 100만원  
권영익 이사 10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한복래 남양주지부 회원 20만원  
이덕만 본부감사 100만원  
윤홍선 전)이사 100만원  
이상영 이사 400만원  
이연화 꽃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복수 이사 30만원  
류중석 의왕지부 회원 100만원  
박경서 이사 100만원  
설병갑 이사 10만원  
정연수 이사 20만원  
정홍재 구미지부장 10만원  
백승의 장학위 감사 35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이병화 장학위 부위원장 350만원  
김정금 이사 500만원  
백만중 부이사장 150만원  
이재수 이사 50만원  
황양운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오종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2024년 장학금 지급 2,400만원

현재 잔액  
188,612,367원



f-stop



ICU 파티션 시리즈

듀라 다이아몬드 원단으로 더욱 강해진

틸로파 50L

아즈나 37L



쉽고 간편한 필터 교체 시스템

Haida® M10 필터



초광각 렌즈를 위한 렌즈 후면 장착 필터

Haida® 리어렌즈 필터



자석을 이용해 빠른 장착이 가능한 필터

Haida® 마그네틱 필터



BENRO®

# CYAN BIRD NAPOLEON

벤로 사이언버드 FS30 나폴레옹 카본 삼각대



단 1초만에 장착!  
도브테일 퀵 릴리즈



헤드포함 **0.99kg**  
페이로드 **4.50kg**

BENRO® Let's go!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문의 **02-775-6681**

BENRO®

BENRO PREMIUM MAGNETIC FILTER

## 마그네틱 필터의 탑클래스 벤로 자석필터 시리즈



사진: 탐험가, @withkhyun (석현)/ 스위스, 마티호른



타사대비  
2배이상 자력



발유, 발수  
오염방지 코팅



최상등급  
광학기술



자외선, 적외선  
완벽 차단



울트라 슬림  
필터 프레임

벤로코리아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삼각대와 사진장비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TEL 02-775-6681 www.benrokorea.co.kr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BENRO® 벤로코리아  
Let's go! BENROKOREA

H&Y



# Revoring MarkII ND3-1000 + CPL 가변 필터

46-62mm | 58-77mm | 67-82mm | 82-95mm

VND+CPL 기능이 결합된  
완벽한 조합

빛, 반사 및 색상 향상을  
정밀 제어 가능

레보링 시리즈에서  
업그레이드 된 안정성

고급 듀얼 잠금 시스템으로  
안전한 사용 가능

어댑터링 + 마그네틱  
레보링 시스템

다양한 구경의 렌즈와 호환되고  
마그네틱 필터를 빠르게 장착 가능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진입니다

Leofoto®



## Geared Head

3D/4D 기어 모션으로 원하는 모든 각도로 회전이 가능하고 수평, 수직, 틸트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편리한 촬영을 지원하는 레오포토 기어헤드

3D/4D  
정밀 기어 컨트롤

FAST  
빠른 컨트롤

360°  
파노라마 시스템



G3

G4

G4 PRO

제품 높이	96mm	108mm	130mm
제품 무게	450g	690g	820g
베이스 직경	50mm	60mm	60mm
나사 규격	3/8"	3/8"	3/8"
최대 하중	12kg	20kg	20kg

# 제43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보정, 출력, 접수, 액자제작까지  
- 회원전, 축전, 작품전 대행

## Artluxe® 총판

아트룩스는 천단 소재 기업 존스미디어(주)의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실내, 실외 자외선/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포토패널 시스템입니다.



출력 전시계획-한지·페브릭·캔버스출력

PNP아트룩스™



Artluxe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라세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조명반사를 줄여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CRYSTAL ART 크리스탈아트  
아크릴보다 진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SUREVUE 슈어뷰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집중도를 높여  
품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ANVAS 캔버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PEBRICK 페브릭  
모래알같은 잔잔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 한사전, 시도전, 사진축전, 갤러리, 야외전시작품 제작 대행 예약받습니다 -  
\* 작품 보정작업도 가능합니다. 파일전송(이메일) : bebe9006@naver.com \*

※ 아트룩스 제품이라고 불법으로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필름 사진출력을  
합성지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제품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반드시 문의 010-4610-9007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Artluxe®  
프리미엄 포토패널 총판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배너광고, 월간 한국사진 광고 중 ]

# 이것이 진정한 아트다!

사진작가가 원하는 모든것! 그 이상...

궁극의 사진표현력, 미세한 디테일까지...

두진아트만의 미디어별 사진이미지 전체&부분 정밀보정 프로파일 적용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전 동호회 그룹전 개인전 사진인화&액자제작 납품실적 업계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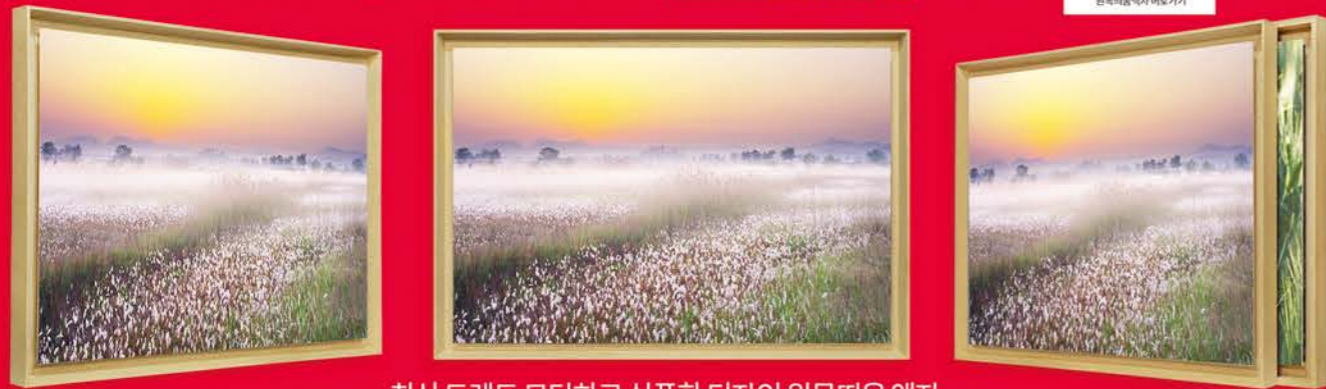
원목 띄움 액자  
아트페블릭인화 & 한지인화 & 아크릴디아섹 적용



삼각원목  
사각원목



원목띄움  
전시액자  
바로가기



최신 트렌드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 원목띄움 액자

2024 제9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참여작가 작품제작, 설치, 철수, 전국배송 문의

사진작가의 입문. 두진아트와 함께...

## 전국 사진공모전 접수대행

가격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큐알코드를 확인하세요.

아래 큐알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대시고 URL를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원목띄움액자 바로가기

원목띄움 전시액자



공모전 인화 접수

두진아트 공모전



두진아트 작품미리보기

두진아트 쇼핑몰



두진액자

두진액자 쇼핑몰



김기현 갤러리

김기현 갤러리

# 사진전시 실적 업계 1위

1만명 전문사진가의 선택! 사진전시 실적 업계 1 위 두진아트

개인전 회원전 그룹전 사진전시는 두진아트에서 최신 트렌드 작품액자로 준비하세요.

D5띄움 액자 (화이트,우드,월릿,블랙)



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아트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무반사디아섹



고광택 디아섹



지부행사용 소품액자 (화이트,우드,월릿,블랙) . 사이즈 (3R, 4R,5R, 6R, 8R,11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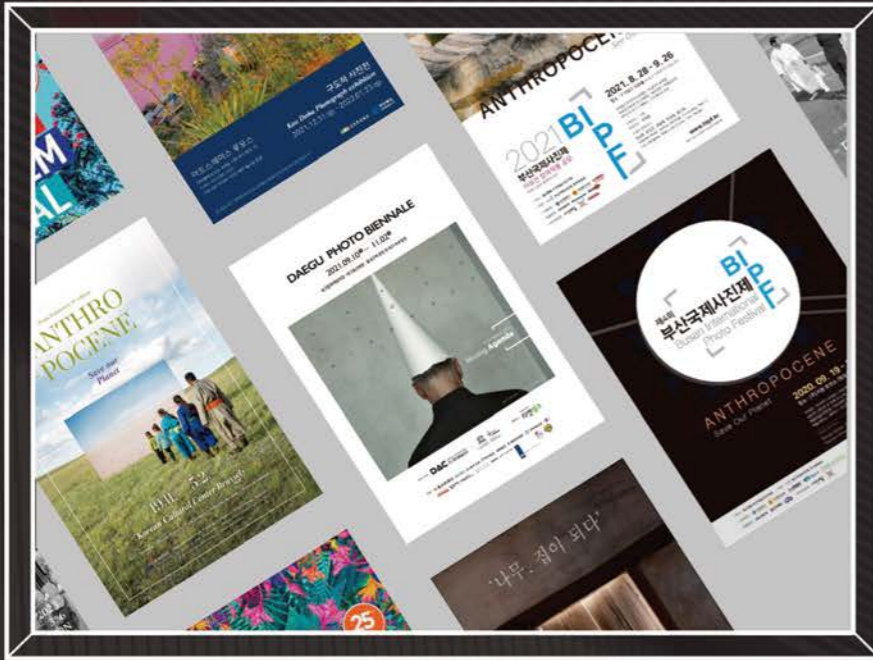


두진아트 TEL. 031-314-1085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 (신천동496번지)

제품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 . 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

NAVER 두진아트





Arttre collaborates with photographers on photo exhibitions.

아트레는 전시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진 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시회 사진출력부터 액자까지 한번에 안성맞춤



**아트레**

T\_ 1544-2188  
M\_ 010-3467-3513  
Webhard\_ ID\_arttre PW\_B108

**정덕원**  
관리이사

1공점.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9길 21  
2공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황봉로 28

## ARTTRE FRAME

**Arc diasec** 아크 디아섹  
고품격 프리미엄 아크릴액자

Frameless



**Premium acrylic** 프리미엄 아크릴  
화이트엠티지 아크릴액자

White



**Gallery frame** 갤러리랩  
신개념 랩핑액자



**Canvas frame** 캔버스랩  
은은한 색감과 패브릭의 질감이 매력적인 캔버스액자



**Black wood frame** 블랙우드  
고품격 프레임액자

Black



**Gallery wood frame** 갤러리우드  
슬림하고 심플한 무늬목 몰딩으로 모던함 극대화

Brown



# 사진여행의 시작

포토투어가 작가 여러분의 특별한 사진여행을 안내합니다.  
감동과 추억이 간직되는 여행을 만들겠습니다.



### 포토투어 2025년 촬영계획

- 1월 -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중국 패상 겨울 촬영  
- 일본 비에이 촬영
- 2월 -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인도네시아 숲바섬 촬영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 3월 -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 인도네시아 숲바섬 촬영
- 4월 -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체코 남모라비 봄 촬영  
- 인도네시아 숲바섬 촬영
- 5월 -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인도네시아 장노출 촬영(홍복외)
- 6월 -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이탈리아 돌로미티 촬영  
- 아이슬란드 봄 촬영
- 7월 -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인도네시아 숲바섬 촬영  
- 필리핀 볼루리군 촬영
- 8월 -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중국 패상 여름 촬영
- 9월 -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아이슬란드 가을 촬영  
- 체코 남모라비 가을 단풍 촬영(1차)
- 10월 - 체코 남모라비 가을 단풍 촬영(2차)  
-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11월 -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인도네시아 숲바섬 촬영
- 12월 - 남인도 차밭 촬영(World Photo)  
-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일본 비에이 촬영



# PHOTOTOUR



## 모나용평 제휴사 특가 패키지



### 패키지구성

1. 스키패키지  
 정상가 640,000원  
 객실 + 리프트 + 장비렌탈 150,000원부터 76% OFF

2. 조식패키지  
 정상가 440,000원  
 객실 + 조식뷔페 86,000원부터 80% OFF

### < 할인권 8종 >

리프트 30% · 장비렌탈 35% · 발왕산 관광케이블카 30%  
 공룡해양랜드 20% · 용평위터파크 30%  
 애니포레 20% · 더 살레 10% · 모나 베이커리 10%

### 예약방법

1. 모나용평 홈페이지 접속(www.yongpyong.co.kr)
2. 단체행사 → 제휴사예약 → 제휴사패키지 선택
3. 고객번호 입력 후 객실 선택 (고객번호: 1190519)

## 모나용평 제휴사 패키지 할인 안내

### 01. 모나용평 홈페이지 접속



### 02. 단체행사 ▶ 제휴사 예약 접속



### 03. 제휴사 패키지 선택



### 04. 사진 안내받은 고객번호 입력



### 05. 날짜 선택 및 객실 선택 후 예약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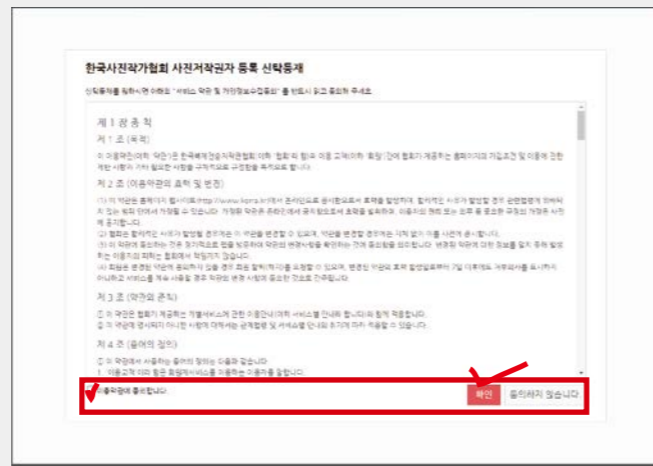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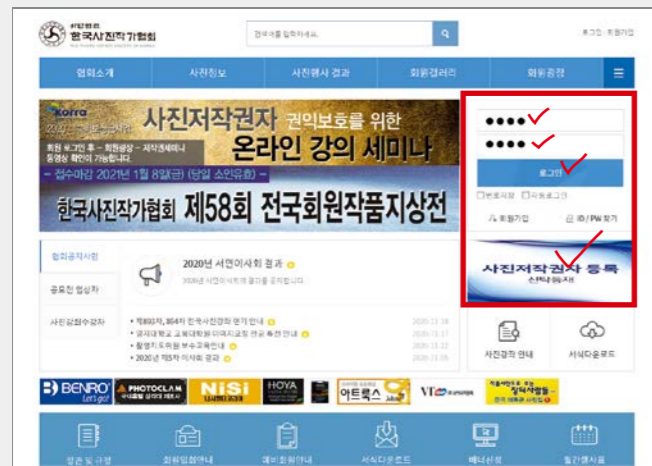
# 신탁등재는 내 사진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 신탁자 등재 절차에 따라 등록이 가능!

본 협회는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진저작자인 본 협회 회원들의 사진저작물 침해 방지의 최선은 신탁등재로 사진저작물 침해시 최선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협회 회원만으로도 신탁등재를 희망하는 누구든 신탁등재만으로도 신탁자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탁등재 안내를 드리오니 순서에 따라 등재시 사진저작물 권리침해 방지 및 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탁등재 등록이 가능하며, 사진저작권자로서 신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진저작권 신탁등재 전산화 등록방법



- 1**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1
- : 본 협회 홈페이지 접속
  - : 로그인 창에 회원번호, 비밀번호 로그인 실행
  - : 하단 사진저작권자 신탁등록 배너광고 클릭

- 2**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2
- :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KOLAA 이미지뱅크 신탁등록 이동
  - : 신탁등재 개인정보 및 약관 숙지 요망
  - : 최종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오른쪽 확인 키 클릭



-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3**
- : ①~⑤ 순번 대로 필수 입력사항, 단 ⑥번 필명은 선택사항
  - : ⑦번 소속단체는 고정 값
  - : ⑧~⑩번 입력 진행,
  - : ⑪번은 전화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클릭 필수



-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4**
- : ①번 해당 주민등록번호 입력
  - : ②번 주소검색 클릭 후 주소팝업 검색창에 주소 입력 후 해당주소 클릭
  - : ③~④번 순서대로 입력 진행



-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5**
- : ①번 계좌번호 입력
  - : ②~③번 해당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이미지 데이터 첨부
  - : ④번 250자 이내의 개인 프로필 입력, 약력사항 위주
  - : ⑤번 모든 입력사항 완료 후 가입하기 클릭

※ 신탁등재 전산 회원가입이 완료 후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의 등록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최종 등록승인 절차 완료 통지 후 코라 이미지(www.korramimage.com)로 접속 로그인 후 사진저작물등록이 가능합니다.

- [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저작권자 등록 신탁등재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필수 기입 사항 입력 후 가입신청
- [관리자] 신청확인 후 가입정보 토대로 입회신청서 및 저작권위탁 신청서 각 1부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발송 (메일 미확인 시 작가분 연락처로 문자안내 및 유선 안내 드립니다.)
- [작가] 각 신청서 검토 후 서명날인하여 관리자에게 회신
- [관리자] 확인 후 정회원 승인 (확인문의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 070-4265-1500)
- [작가] 코라이미지 사이트(www.korramimage.com) 저작물 등록 가능(최대 5개) 이후 추가 등록물은 본 협회 사진저작권 담당자에게 전달 또는 문의요망 (02-2655-3131)

#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을 모집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는 우리 협회의 얼굴입니다.

이에 표지투고 선정작 작가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혜택을 드리하고자 표지 선정작가에게 30만원 사진창작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선정작가에게 책자는 5부만을 배부됩니다.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구상, 비구상 뿐만 아니라 현대사진 패러다임의 사진작품이 게재되어 월간 한국사진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 사진전문 잡지로 사진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 ·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한 개선된 표지투고 선정 방식

1.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해 본 협회 회원이면 참여가능 / 2. 표지가 세로도판인 관계로 세로형 작품 및 작가노트 충실 요망
3. 투고작 심의 - 이사위원회 출판팀 심의 선정
  - ※ 단, 최종 선정된 표지 원고는 월간지 작업시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될 수 있음. (작품원본 변형을 원치 않을 시 투고 고려요망)
  - ※ 단, 촬영데이터 (Capture Date & Time, Exposure Data S/F Camera, Lens, 장소, Focal Length, Filter, White Balans Temp, Develop Data, Merge(합성) 내용, Panorama, Bracketing(HDR, WB Focus), Interval, Time lapse, Inverted(반전), Tilling, Zooming, Panning, 장노출 등 모든 촬영기법 및 현상기법과 내용을 표지투고시 공개해야 함. 선정작에 한해서만 상세사항은 기재되며 미선정작은 공개되지 않음.

## · 월간 한국사진 표지원고 투고 방법

웹하드(www.webhard.co.kr) - 아이디 kpassk / 비밀번호 kpassk 접속 후 → 올리기 전용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 투고자 성명 폴더 생성 후 작품2점 + 작품명, 작가노트, 촬영데이터 및 이력사항(연락처) 업로딩 요망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마감일 전월 20일 마감입니다.

## + 월간 한국사진 1월호 표지원고 투고작품



· 김재훈  
· 추암의 일출



· 여용철  
· 아침

## 월간 한국사진 본문 지상전 또는 포토에세이 게재 안내

사진전문 잡지인 월간 한국사진은 본 협회 회원들 뿐 아니라 사진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사진작품을 소개하여 직·간접으로 사진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지상전 또는 포토에세이 꼭지로 투고작 중 출판위원회 회의를 거쳐 게재되는 무료 게재와 본인의 작품세계를 1만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료 게재로 진행됩니다. 게재를 희망시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지상전 & 포토에세이 게재 신청 방법

1. 대표작 8~12점, 작가노트 A4 1장 또는 1/2분량.
2. 작품제목, 작가명, 작가노트 삽입하여 제출요망.
3. 유료 게재 20만원 - 월간 한국사진 10권 제공, 4페이지 게재.
4. 데이터 올리는 곳
  - : 웹하드 접속 후 아이디 kpassk / 패스워드 kpassk - 지상전(포토에세이) 투고 폴더에 투고자명 폴더 생성 후 업로딩
  - : 본 협회 이메일 koreapask@daum.net 로 지상전(포토에세이) 투고자명으로 데이터 업로딩
5. 업로딩 일자는 익월 게재 희망시 전월 3번째 주 금요일 이전까지 데이터 업로딩 요망  
(ex. 2월호 게재 희망시 1월 18일 이전까지)
6. 단, 투고원고가 너무 많을 시 임의 배정 및 편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게재 문의. 02-2655-3131 단, 유료게재 희망시 필히 편집장과 직접통화가 필요합니다.



# Photo Art Korea展 Time Story – 사진 속 시간 이야기

전시일시 2025년 2월 12일(수) ~ 2월 18일(화)  
 전시장소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2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0길 11-4 / Tel.02-733-4448)  
 참여작가 김용열 국향숙 오금희 이건화 장옥선 최은연 최은자  
 작품지도 김용열(지도강사)

7명의 사진가가 경인 미술관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빛과 소리를 통해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공간에 남겨진 흔적과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저마다의 스펙트럼과 감성이 마치 일곱 색깔 무지개인 듯 펼쳐진다.

## 김용열 작가(지도강사)



©김용열\_관객과의 대화

우리가 하는 사진을 설명한다면 나는 눈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인간이 구사하는 언어는 말과 글로 표현하지만 사진은 시각이다. 바로 눈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은 절대적으로 보는 사람과의 소통을 전제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 받을수 있는 것이다.

사진가는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지 못하고 행동을 유도하지 못하며 설득력이 부족한가라는 물음표에 고뇌해야 하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화 속의 세상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쉽게 접근 할수 있는 것 또한 사진이고 핸드폰의 보급으로 인해 더욱 쉽게 일상화 되어 버린 것이 사진이기도 하지만 난이도 또한 높은 예술의 한 장르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여 가장 빨리 좌절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사진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의 7가지 스펙트럼 색 파장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듯이 그 빛이 물체를 통해 수용자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끈임없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노력과 함께 예술적이고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요소도 중요해 이 기술들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관객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은 작가의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관객과의 대화 또한 시각적 언어로 관객과 하나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Photo Art Korea(포토아트코리아) 작가님들의 이번 전시가 갖는 의미는 각자의 독창적이고 강력한 시각적 언어로 표현된 작품들에서 관객들의 감성을 풀어내는 시간이 될 것이다.

## 국향숙



©국향숙\_SPACE 11



©국향숙\_SPACE 8

빛의 축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을 달고자하는 인간의 꿈이기도 하다.

꿈이 현실 속 상상의 나래라는 공간을 만들 듯 가슴 속에 피어나는 향연이, 공간의 차원(Dimension)에서, 빛의 축이 되어 노니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우리 인간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한한 공간에서 우리의 삶과 감정 그리고 존재의 의미와 연결된 상상 그 이상의 자유로움으로 꿈꾸는 피사체들의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해 본다.

## 오금희



©오금희\_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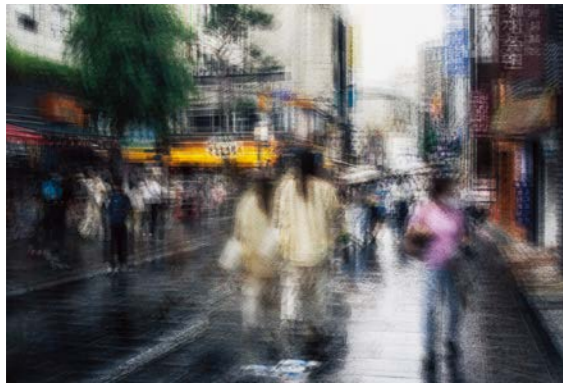


©오금희\_산책로 단풍

자연이 주는 안정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와 뿌리 깊게 자리한 나무의 존재는 마치 인간에게 속삭이듯 안정감을 선사한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탐구하며 삶 속에서 잊고 지낸 평온과 쉼을 사진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 이건화(아인)

복잡한 도시의 풍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다람쥐 쳇바퀴 속의 일상으로 생각한다. 빌딩 숲과 끝없는 도로, 회색빛으로 물든 풍경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성취와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탈출'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심에서 벗어나고



©이건화\_도시이야기



©이건화\_도심속의 탈출3

해도, 일상의 틀에 갇혀 있다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없다. 제가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물리적 공간의 변화뿐 아니라 내면의 '탈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작품은 그런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의 갈망을 담고 있다. 단순한 공간적 도피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려내고 싶었다. 익숙한 도시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잊고 있던 자연, 여유,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는 작은 탈출구를 발견하기도 한다.

도심 속의 탈출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한 걸음 옆, 잠시 눈을 돌리는 순간에 이미 그곳이 있기도 하다.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이 스스로의 일상에서 '작은 탈출'을 시도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인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이중적인 감정을 탐구하며, 제가 느낀 도시와 자연, 일상과 탈출의 균형을 이 작품에 담았다. 도심의 탈출은 우리 모두가 함께 떠나는 마음의 여정이다.

**장옥선**

자연이 우리에게 준 꽃은 그 모습과 향기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꽃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것을 사진으



©장옥선\_시간의 흔적



©장옥선\_꽃의 기로

로 남겨두면 그 순간의 감동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다. 사진 속에는 단순히 사진만이 아닌 사진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기에 더 그렇다.

꽃병 속에 담긴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며 예쁜 순간이 없어지기 전에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꽃의 아름다움을 승화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다 시도한 것이 디지털카메라 꽃 촬영이었다.

첫 번째 촬영은 빛과 시간을 이용한 순간 촬영으로 그림자가 보여진 이중사진이었다. 꽃의 아름다움 외에 카메라로 빛과 그림자로 표현한 부분은 마치 꽃의 영혼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다. 꽃의 다른 촬영은 미세한 빛으로 오랜 시간으로 만들어진 드라이플라워 촬영이었다. 신선한 꽃과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도 은은하게 살아 있는 잎과 색깔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드라이플라워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덧붙여 디지털 기술을 응용해 촬영한 사진에 그림자를 줌으로써 꽃의 영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번 전시회 작품은 카메라에 보여지는 뷰 파인더의 꽃을 시간과 빛을 이용해 내 안으로 생명을 끌어들여, 보이는 것만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꽃의 승화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시시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진의 합성이 아닌 디지털 카메라 및 디지털기술을 응용해 표현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최은연**



©최은연\_비 내리던 날



©최은연\_그들만의 세계

다중... 감성의 흐름속에서

나는 풍경을 다중촬영 기법을 통해 담아내며, 자연과 그 속에서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을 한 장면에 고스란히 담아내고자 한다. 다중촬영 기법은 여러 순간을 한 프레임에 결합함으로써 풍경이 변화하는 모습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관객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우리가 지나치는 순간들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자 한다.

풍경은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며, 항상 변화하고 있다. 계절의 변화를 따라, 날씨의 변덕에 따라, 빛의 변화에 따라 자연은 매 순간 다른 모습을 보인다. 나는 그 변화의 속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차례의 촬영을 통해 각각의 장면을 포착하고, 이를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한다. 다중촬영은 단순히 여러 장면을 겹치는 작업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대와 변화하는 요소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깊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의 리듬을 따라가며, 반복되는 순간들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차이를 탐구하며 다중촬영 그 자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지니며,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풍경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게 만든다.

다중 촬영이라는 이 작업을 통해 관객이 자연의 변화와 그 미묘함에 더

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래보며 우리가 놓친 순간들이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의 의미를 완성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최은자**



©최은자\_문화의 산물



©최은자\_아름다운 선율

나는 사진을 통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를 탐구한다.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형상화하기 위해 선, 빛, 조명을 이용, 선적인 흐름과 면적인 깊이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등을 담아 생동감을 전달하고 빛의 경로를 자유롭게 설계해 초자연적이고 추상적인 패턴을 생성하여 빛의 경로로 공간감을 확장하여 작품에 순간적 생동감과 에너지를 배가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빛의 경로를 물의 흐름과 장작불 같은 요소들로 결합해 인간의 본질을 봉산탈과 무속인의 승무로 시각화 하여 한 장면에 담아낸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초자연적 상상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을 창조하여 작품의 생동감과 몰입감을 더해 보는 이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



전시광고

아틀리에21 개관 기념사진전  
Light & Moment #3  
**흰 밤을 지새다**

김민주(구미)

전시제목 아틀리에21 개관 기념사진전 Light&Moment#3 흰 밤을 지새다  
전시일자 2024년 12월17일(화) ~ 2025년 2월 28일(금)  
관람시간 AM 10:30~PM 06:30  
전시장소 아틀리에21(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21, 해마루밸리2층)  
전시작가 김민주(010-3337-0764)



©김민주

어둠이 짙어질수록 세상은 고요해진다.

하늘은 무수한 별빛으로 수놓아져  
 밤의 장막을 더욱 신비롭게 드리운다.  
 그 사이로 오로라가 나타나  
 춤을 추듯 빛을 발하며, 세상을 감싸 안는다.

내가 바라본 별빛은 우연이면서도 필연적으로 나에게 다가왔고,  
 나라는 존재가 거대한 무한 속에서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이  
 들 때, 그 강렬한 실존의 찌림이 바로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에 나오는

퐁크툼(Punctum)적 요소로 다가왔다.  
 이 퐁크툼은 별빛이 단순히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존재가 아득해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와 우주가 연결되는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주는 무한하지만, 그 무한 속에서 나라는 유일한 존재가 살아가고 있  
 다는 깨달음이 깊고도 고요하게 스며드는 순간이다.

시간이 지나고, 깊고 어두운 밤은 새로운 꿈을 꾸며,  
 서서히 붉게 물들어 가는 아침의 첫인사를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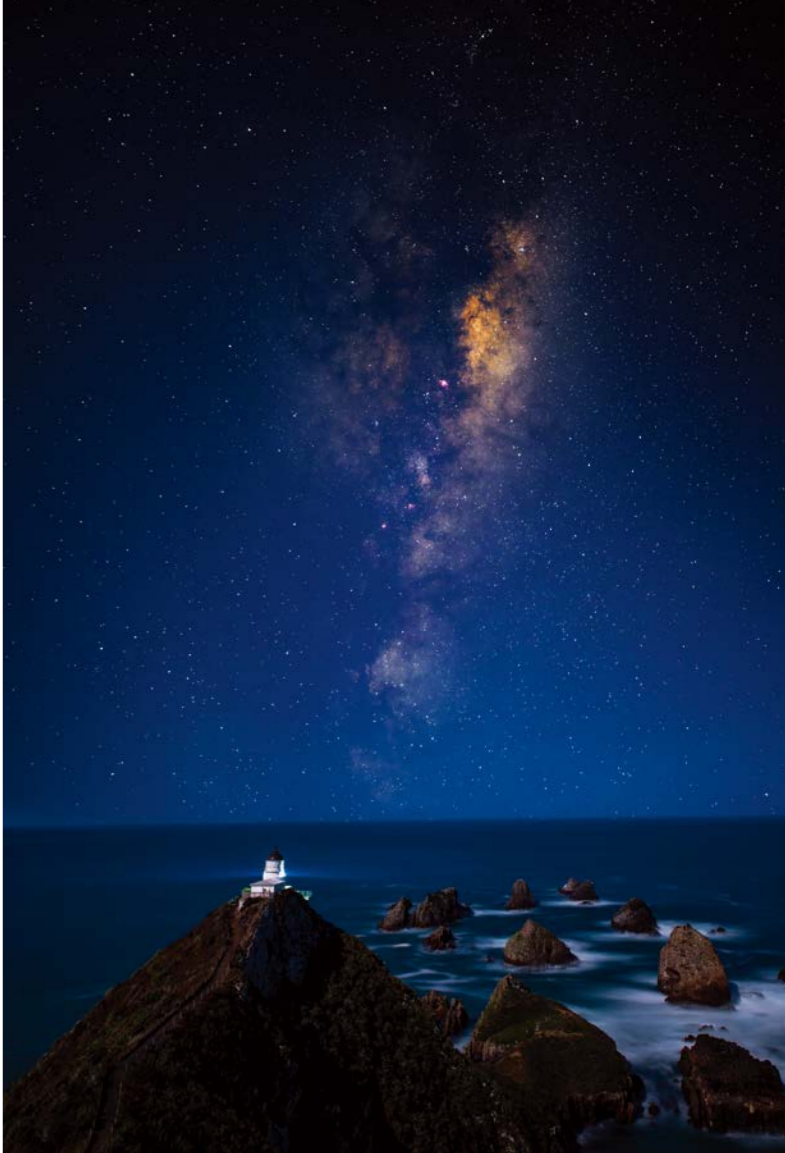


©김민주

우주의 거대한 공간에 별들이 반짝이지만 별 하나는 한 점에 불과하다.  
 별 하나가 생명을 다 하여 하늘에서 떨어지면 우주 속에 한 점인 나 또한  
 우주와 연결되어 하나임을 깨닫는다. 어두운 하늘 빛을 내는 별 하나가 큰 우주임을,  
 나 자신 작은 점 하나가 또 우주를 품고 있음을 깨닫는다.

©김민주

©김민주



# 2024 서울포토편제스티벌 in aT 제9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개최

사진인 대거 참석, 여야 정치인 영상메시지 '눈길'

글: 사진 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사진 오건호(보도사진분과 부위원장, 홍보위원회 사무국장) 서승원(홍보위원회 위원)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테이프 커팅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내외빈들

12월 4일(수)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 있는 aT센터 제1전시실에서 2024 서울포토편제스티벌 in aT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전식을 경인방송 박주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개최했다.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전식을 선언하는 유수찬 대회장(본 협회 이사장)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영상축사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 김시묵 부이사장이 내외빈을 소개하며 시작되었다. "1만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수장 유수찬 이사장, 오세훈 시장 영상축사, 주호영 국회부의장 축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기,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축기, 더불어민주당 직능위원장 박홍근 의원 축기, 전성수 서초구청장 축기, 안철수 의원, 조은희 의원은 참석 예정이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참석 못 했다. 주요 참석 인사들 중에는 최명서 영월군수, 재능대학교 이남식 총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조강훈 회장, 한국음악협회 이철구 이사장, 종유성 중국예술사진학회 부주석, 조인성 베이징 국제사진주간 총감독, 메드비치 이스트반 주한리스트





특별전 부스를 관람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내-외빈들



헝가리문화원장, 박영서 한국젬스 대표이사, 박승흠 매일노동뉴스 회장, 김형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김영미 한국국악협회 부이사장, 전국미술교육협회의 김형근 회장, 오경자 국제PEN한국본부 이사장, 권남희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이은주 전)제천시장, 한영순 한국예총 화훼협회의 이사장, 최차열, 선종백, 백만중, 이향룡 부이사장, 이경래, 이덕만, 공병철 본부감사, 김종호, 조건수, 김양평, 홍창일, 강부만 고문, 신현하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정식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추천작가위원장, 문제민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문철상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심재안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옥수 60년사 편찬위원장, 최재영 한국바른언론인협회 이사장,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협회 본부 이사, 전국 지회·지부장, 원로 자문위원들.” 이 포함되었다.



특별전 부스 및 유수찬 이사장 부스 작품 관람 후 기념촬영을 하는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내-외빈들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에 참석한 내·외빈들을 소개하는 김시목 부이사장



축사를 하는 최명서 영월군수



축사를 하는 재능대학교 이남식 총장



축사를 하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조강훈 회장

유수찬 대회장은 “이번 행사는 재능대, 중부대, 홍익대 대학원 사진 전공 학생들의 교류전을 마련했고, 행사 기간에 우리 협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사진예술을 이끌어 갈 미래를 키워 내고자 합니다. 또한 중국예술사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추천받는 다섯 분의 훌륭한 중국 작가님들의 전시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진을 통해 소통하며, 양국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영월군 관광사진전과 한강사진전을 비롯하여 사진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멋진 작품이 전시장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진축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사진예술의 매력을 전달하고, 일상에서 사진을 통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대회를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영상축사를 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2024 서울포토펬스티벌 제9회 대한민국

사진축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축제를 위해서 애써주신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진예술을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체험하고, 올해는 서울의 보배인 한강을 주제로 한 축제로 역동적인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탐구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부장 축전은 사회자가 대독했고 이남식 재능대학교 총장과 조강훈 한국예총 회장에 이어 최명서 영월군수가 축사했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을 주제로 사진전이 열린다고 했는데 수도권 2000만 국민의 젖줄인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시 검룡소인데 영월을 거쳐 갑니다. 영월은 산과 강이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2005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사진박물관을 영월에 세웠습니다. 영월군 관광사진전이 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진만이 아니라, 방랑시인 김삿갓으로 문학의 도시로



식전공연 - 남성 3인조 그룹



식전공연 - 6인조 혼성 그룹

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월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외빈과 임원진이 개전식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어서 내·외빈이 전시 작품을 관람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식전 행사로 6인조 혼성 그룹과 남성 3인조 그

룹이 성악과 가요 등을 불러 분위기를 돋우어서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행사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최, 대한민국사진축전 조직위원회 주관,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사)한국예총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을 공식 방문한 중유성 중국예술사학회 부주석(사진 맨왼쪽 세 번째), 조양신 베이징 국제사진주간 총감독(사진 맨왼쪽 두 번째)



본 협회와 중국예술사학회 상호간 업무협약에 따른 상호교류를 위한 회의 주요사항을 설명하는 김시목 부이사장



VIP Room에서 내·외빈들과 좌담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시상식  
서울시 일상사진 공모전, 대상에 이근숙 수상



수상자들 및 워빈, 내빈과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대상 이근숙씨에게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지난 12월 8일(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 있는 aT센터 제1전시장 메인 무대에서 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 및 청소년사진제 시상식을 김형준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개최했다.

김형준 사무처장이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 최차열, 백만중, 김시목 부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등 한국사진작가협회 임원을 소개했다.

김 사무처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2024 서울특별시 민간 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에 선정된 서울 포토편제비날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사진예술의 시민 참여 영역 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물리적 공간인 '서울'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식 접속 사이트를 통해 10월 말일까지 총 516명(1631점) 접수했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개별 점수제로 심사한 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선 5점, 입선 50점을 선정했습니다. 시상식 후 본인 확인 후 작품 액자와 책을 증정합니다."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은 "일상사진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사진예술이 작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그 행사를 하고, 또 청소년 사진제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이라는 예술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능력을 찾아내어 사진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비싼 카메라로만 찍는 게 아니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출품해도 가능합니다. 이 행사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시상식은 최차열, 백만중, 김시목 부이사장과 배택수 상임이사가 차례로 했는데 강호윤 씨 등 50명에게 입선상장을 수여했다.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백만중 부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김시목 부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최차열 부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임성동 이사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김시목 부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임성동 이사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백만중 부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배택수 상임이사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임만덕 이사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유수찬 이사장이 특선상 박지연, 최혜순, 강태수, 신은주, 이종수 씨에게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우수상 고기영, 김흥열 씨에게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장 조광훈 상장, 최우수상 김진미 씨에게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상장, 대상 이근숙 씨에게 오세훈 서울특별시 장 상장을 수여했다.

입선 5만 원 문화상품권, 특선 상금 10만 원, 우수상 상금 20만 원, 최우수상 상금 30만 원, (대상은 선거법상 상금 없음) 이 수여되었다. 전체 수상자와 한국사진작가협회 임원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시상식을 마쳤다.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시상식  
청소년사진제 공모전, 대상에 경기 예당고 손재원 학생 수상



수상자들 및 워빈, 내빈과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대상 손재원 학생에게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최차열, 백만중, 김시목 부이사장, 홍창일 고문, 배택수 상임이사, 최갑수 한국예총 이천시회 회장."

오후 2시, 청소년사진제 시상식을 김형준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개최했다. 사회자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임원을 소개했다.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작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제2회 청소년 사진제입니다. 서울특별시 후원 대회로 서울 포토편제비날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신협중앙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상금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목적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예술 활동, 핸드폰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진 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사진 예술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기에 같은 연령대별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468명(1384점) 접수, 5명의 심사위원이 개별 점수 채점제로 심사했습니다. 문철상 대외협력위원장, 중부대 사진학과 안시준 교수, 경상대 사진학과 이재구 교수, 재능대 사진학과 진정근 교수, 홍익대 대학원 이원철 교수가 심사했습니다. 시상식 후 전 시작품과 작품집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사회자가 설명했다.

유수찬 이사장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예술이 사진입니다. 사전에 자질을 파악해서 본인들이 알 수 있게 해서 사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수하시는 분이 사진을 하는 분이랍니다. 내가 찍은 사진을 보면서 즐기니까 건강에 좋다는 소식입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유수찬 이사장이 초등부 입선 서울중대초등학교 김지울 학생 등 6명의 입선자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최차열 부이사장이 4명의 입선자에게, 백만중 부이사장이 4명의 입선자에게, 김시목 부이사장이 3명의 입선자에게, 홍창일 고문이 3명의 입선자에게, 배택수 상임이사 4명의 입선자에게, 최갑수 이천시회 부장이 4명의 입선자에게, 임만동 이사가 입선자 3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유수찬 이사장이 특선 이상 상장을 수여했다. 특선 초등부 경기 영북초등학교 신소울, 중등부 서울국제고등학교 김현, 서울 숭실고등학교 이세영, 대구 오성중학교 이유찬,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한은서, 경기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홍창일 고문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임만덕 이사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배택수 상임이사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최차열 부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최갑수 운영자문위원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김시목 부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임만덕 이사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백만중 부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최차열 부이사장



상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백만중 부이사장

보평중학교 황서진 학생에게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 상장을 수여했다.

우수상, 초등부 서울서정초등학교 이시윤 학생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조강훈 회장상을 받았다. "평소에 사진을 좋아했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한 번 응모해 봤는데 운이 좋게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중등부 우수상, 서울 대신고등학교 오무영, 대전 송촌고등학교 정민하, 서울 중등고등학교 정준우 학생에게 조강훈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상, 최우수상, 전남 화정초등학교 김진손, 서울 대명고등학교 차세연 학생에게 김대중 전남교육감 상장을 수여했다.

대상, 경기 예당고등학교 손재원 학생이 받았다. "제가 대상을 탄 것은 매일매일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얻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입선 50명에게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과 5만 원 문화상품권, 특선 10명에게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과 상금 10만 원, 우수상 4명에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조강훈 회장 상장과 상금 20만 원, 최우수상 2명에게 전남교육감 김대중 상장과 상금 50만 원, 대상엔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었다.

수상자와 가족, 그리고 임원진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시상식을 모두 마쳤다.





장학금 시상 후 수상자들과 외빈, 내빈과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장학금 시상하는 유수찬 이사장



장학금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심재안 장학기금관리위원장



장학금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심재안 장학기금관리위원장



장학금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장학금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장학금 수여식 인사말을 하는 심재안 장학기금관리위원장



축사를 하는 증유성 중국예술사진학회 부주석



장학금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재능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서석돌 학과장



장학금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조영신 베이징 국제사진주간 총감독



장학금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장학금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심재안 장학기금관리위원장



장학금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홍창일 고문



장학금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특별전  
위대한 한강, 빛으로 흐르다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특별전  
88서울올림픽, 홍창일 사진전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특별전  
중국작가 초대전-영원, 불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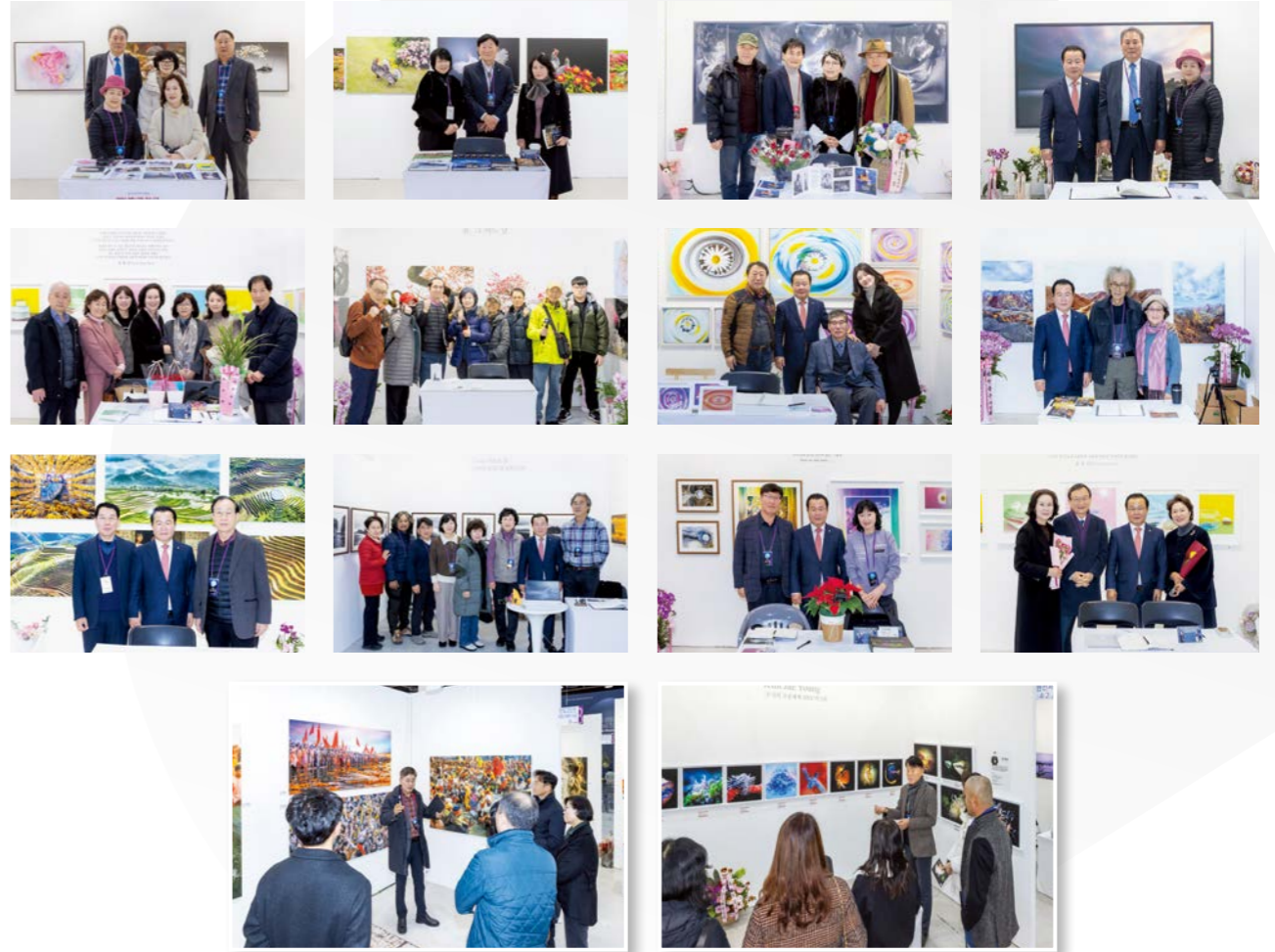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특별전  
사진학과 교류전











©최차열\_화려한 날개짓

어둠 너머 새벽 빛 알리는  
신성한 새  
**꼬꼬의 화려한 자태**

최 차 열(서산)



©최차열\_은수님과 작약



©최차열\_농소화와 세라마

닭의 깃털과 날개는 햇빛에 반짝이며 오묘한 빛을 낸다.  
어둠이 짙을 때 새벽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는 희망의 소리다.  
닭이 양계장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더 고귀한 자태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희망한다.



©최차열\_가을이야기

10여년전 남양주의 지인으로부터 은수님 한 쌍을 선물 받았다.  
어찌나 하는 짓이 이쁘지 관상용 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후로 10여 종의 닭을 기르게 되었다.  
달걀을 주문하고 부화기를 두 대나 구입해서 부화를 시켰고, 추위에 약한 병아리를 위해서 거실에 육추실을 만들어 겨울을 함께 나기도 하였다.  
가끔 자녀들이 방문하면 어이없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손자 손녀들은 귀엽다며 병아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즐겨워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다행인 것은 아내가 이해해 준다는 점이다.  
내가 출타했을 때 병아리가 몇 마리 부화했다고 실시간으로 알려주며 사진을 보내오고, 촬영할 때도 닭을 몰아주기도 하는 내조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닭 식구가 늘어나게 되었고, 한 때는 직접 예쁜 닭집을 짓기에 바빴다. 전기톱에 베어 봉합수술도 한 적도 있다.

오랜 세월동안 닭을 기르다 보니 우여곡절도 많았다.

산과 인접한 곳이다보니 산짐승이 내려와 닭을 잡아가지가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닭장을 더 탄탄히 보수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진돗개 목줄이 풀어져 귀한 닭을 잡아 놓고 칭찬 받으려 꼬리를 흔들던 진돗개 모습, 정원에 내어놓고 출타했다가 좀 늦게 귀가했더니 10여마리의 닭들이 보이지 않았다. 황급한 마음에 주위를 돌아보고 있는데 10여미터 높이의 소나무꼭에서 꼬꼬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을 기다리다 날이 어둡자 소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다. 주변의 잡초를 매노라면 닭들이 주변을 맴돈다. 지렁이나 벌레를 잡아 달라는 것이다.

한가지 불편한 점은 우리 부부가 이들 이상 집을 비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밥을 굵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집 꼬꼬들은 식구로 인정하게 되었고, 외국에 가셔도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하기도 한다.

정원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닭들은 나의 카메라 모델이 되었고, 나는 닭들의 친구가 되었다.



©최차열\_봄날



©최차열\_외출



©최차열\_소나무 휴식처



©최차열\_춘정



©최차열\_겨울 동화



©최차열\_코스모스와 은수남

닭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이다. 닭은 대략 3,500년전 동남아시아에서 키워졌으며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최초에는 신성시 여겨져 육계로 쓰이지 않았으나(닭의 울음소리에 점을 보거나 시간을 알기 위한 용도로 키워짐) 시간이 지나면서 계란과 닭을 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랫동안 친숙한 만큼 다양한 문화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지닌 동물이다.

닭은 삶의 시작과 끝, 빛의 상징, 신성한 존재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상징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닭은 예로부터 오덕을 갖춘 덕금으로 애호되었다.

닭의 빛은 학문적 정상의 표현이자 관을 쓴 것으로 해석하여 문(文),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으므로 무(武), 적을 상대할 때 물러서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므로 용(勇), 먹을 것이 있으면 상대를 불러 나누어 먹으므로 인(仁), 밤을 지키되 때를 잃지 않으므로 신(信)이라고 하였다.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는 하루가 시작됨을 알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또한 닭의 울음소리는 불길한 일들을 물리치고 희망과 광명을 가져온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나는 오늘도 60여마리(은수남, 금수남, 검은꼬리자보, 긴꼬리닭, 브라마, 세라마, 백봉, 금계, 은계, 백한, 백공작) 닭의 합창소리에 잠에서 깨어 닭 모이를 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닭들의 습성을 알아가며 자연과 어우러진 닭들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는다.



# MAHA KUMBH MELA

박경서  
(중구)

박용득  
(구미)

이내교  
(송파구)

태어난 그대로의 알몸 신에 바치노니  
나는 '나가사두'다



©박경서



©박경서



©박경서



힌두의 쿤브 축제는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힘차다.

따뜻한 기운이 대지에 퍼지기 시작 할 때, 갠지스강 찬물에 몸을 담그면서 한해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한다.

3년에 한번 찾아오는 힌두의 쿤브 축제가 열리던 2010년 1월, 인도 북부 하리드바르는 요동을 쳤다. 인도 북부지방의 갠지스는 히말라야 설산에서 눈 녹은 물이 푸른빛으로 흐르자 쿤브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12년마다 쿤브멜라가 열리는 이유는 비슈누뿌라나에 의해 전해온다. 감로수를 차지하기 위해 천신과 악마 사이의 싸움이 12일 동안 계속 되었는데 12일째 되는 날 감로수가 인도의 상감지역으로 떨어졌으므로

12일째 되는 날을 기념한다. 천상의 하루는 인간계 일년과 같아 쿤브멜라는 12년 주기로 매 3년마다 네 지역의 성지를 돌아가며 한차례씩 열린다. 알라하바드, 하리드와르, 우자인, 나식 지역이 쿤브멜라가 개최되는 도시다. 이 지역은 세 개의 강이 만나는 상감[SANGAM/성스러운 땅, 물이 만나는 곳]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힌두의 쿤브 축제는 따뜻한 기운이 대지에 퍼지기 시작할 때 갠지스 강



©박용득



©박용득



©박용득

찬물에 몸을 담그며 한 해 동안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다. 우리가 흔히 갠지스라고 알고 있던 강을 인도에서는 '강가'라고 했다. 강가는 물이 흐르는 강이란 의미이다. 인도인들에게 강가는 대지를 적시는 신으로서 지상의 모든 이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다. 강가의 기운이 가장 센 때를 기다려 힌두교도들은 놓치지 않고 몸을 담그는 데 이것이 세계 최대 규모의 축제가 되었다. 강가는 세차게 흐르며 몸을 맡긴 사람들을 축복하며 흐른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축제이다 보니 인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

축제기간 동안 사두들이 모이는 장소는 따로 있다. 고행을 하는 사두들은 하리드와르의 강가 쪽에 임시 텐트촌을 형성한다. 수많은 일반인들이 이들 사두들을 찾아 축복을 받는다. 텐트 안에서 사두들은 힌두 신을 모시고 생활한다. 대개 삼지창, 칼 등을 바닥에 꽂아 놓았는데 이는 시바신의 상징이다. 작은 북이나, 보석같은 장신구, 심지어는 고급 시계 등을 장신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사두들은 수세미같이 거친 머리카락을 깎아 묶었다. 일부는 옷을 입고 있지만 대개는 옷을 걸치지 않고 장신구로만 치장하고 있다.



©이내교

힌두교도들은 수행자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어 존경한다. 사두들이 깨달음을 얻었으며 신과 교통하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것이다. 사실 사두들은 신을 위해 살아갈 뿐 세속의 욕망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수행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고행을 수반한다. 요가에 서부터 명상, 장기간의 묵언, 육체적 학대, 독신생활을 하며 가난 고독과의 싸움며 진리를 추구한다. 사람들의 육체와 정신을 치료하는 무당이기도하다. 오른팔을 25여년 동안 한번도 내리지 않고 시바신에게 가까이 바치는 사두가 있는가 하면 15년 동안 한번도 앉지 않는 수행자도 있다.

행사가 끝나갈 즈음 수행자들의 천막촌을 찾았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들과 얼굴을 마주했다. 3일전 갠지스강물에 몸을 담그고 정신과 마음을 깨끗히 정화 한 후, 다리 하나를 신에게 바친 젊은 수행자와 조우를 했다. 지난번 보았던 아름다웠던 사두의 모습은 그 자리에 미소만 남기고 먼 길을 떠나고 없었다. 미소가 나를 다시 그곳으로 인도한 것처럼 난 다시 준비한다.



©이내교



©이내교



©이석준\_꽃밭과 집2

비현실적 공간에서, 생명이여 호흡하라

# Dream of House

이 석 준(송파구)

집은 껍데기다. 그러나 그 껍데기가 없다면 알맹이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이상적인 공간을 꿈꾸는 이들이 껍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 비로서 꿈의 집이 완성될 것이다.  
현실과 이상의 합치, 그것은 속과 겉이 하나처럼 아름다워야한다. 집은 그 사람을 닮는다.



©이석준\_그림



©이석준\_집과 노을

어릴 적, 나에게겐 소박하고 조그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쁜 집에서 살아보고 싶은 것이었죠. 그 꿈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 가끔 아름다운 집을 보면 무심코 발길을 멈추고 살펴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에 잠기곤 합니다.

이번 작품은 이러한 개인적인 꿈과 경험을 바탕으로, 약 20년간 이어온 사진 활동의 연장선에서 현대사진의 미학적 가능성을 탐구한 작업입니다. 빌딩과 단층건물 같은 도시 풍경을 촬영하고, 이를 디지털로 수정하며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장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이 작업은 보드리야르가 제시한 '시뮬라크르'의 개념에 영감을 받아, 현실과 이상, 실제와 복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꿈을 떠다니듯 환상적인 감각으로 작업에 몰두하며, 이상적인 공간과 현실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람자가 현실 속에서 이상을 느끼고, 복제된 이미지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석준\_다낭시청



©이석준\_머물고픈 집



©이석준\_떠나온 먼집



©이석준\_롯데월드타워



©이석준\_바다위 빌딩2





©이정근\_7블럭-2



©이정근\_2블럭-1

# 시궁창 악취 속 하얀 미소 피어난다

## 케냐 나이로비 빈민촌 키베라 이 정 근(전주)

오래전에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 Out Of Africa」를 보고 감동했던 적이 있다. 주인공들의 예로직한 사랑도 여운이 남았고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아다지오를 OST로 삼았던 점도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나를 더욱 열광하게 한 점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자연경관이였다. 광활한 초원, 그곳을 질주하는 동물들, 무수한 비행물체처럼 하늘을 나는 플라밍고의 무리! 그 자유분방함! 그때 보았던 영상미를 언젠가 직접 체험하리라. 이 소망은 나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가 되었고 2024년 10월 5일부터 11월26일까지 53일간 대장정에 올랐다. 그리고 아프리

카 10개국 중주를 마쳤다.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남미를 여행한 2017년, 83일간이었다. 53일간의 대 장정을 며칠 남겨두고 마지막 나라 케냐에 도착했다. 수도인 나이로비에 여장을 풀고 스케치할 장소를 물색했다. 이미 계획했던 지역을 웬만큼 방문했고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구글 위성지도를 살피는데 키베라 지역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광활한 초원과 달리 집들이 밀집한 상태를 보니 궁금증이

대자연이 숨쉬는 케냐, 아프리카 야생의 숨결은 키베라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저 넓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동물에게 내주고 사람들은 빈민촌 악취 속에 갇혀 산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 곳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기를 희망한다.



©이정근\_12블럭-2



©이정근\_7블럭-1



©이정근\_7블럭-3

생겼다. 이곳까지 왔으니 이 의외의 장소를 방문해 보자고 하여 일행 한 분과 함께 같이 동행하기로 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 원작자 저택을 관람하고 오면서 일행 한 명과 차에서 내렸다. 큰길에서 동네로 접어드는데 입구에 앉아 있던 원주민이 화장실을 가리키며 보라고 하신다. 고개를 돌려 문을 열어놓았기에 안을 보니 나무 판데기 두개를 놓고 쪼그려 앉아 일을 보는 그런 화장실이었다. 아주 오래 전 우리나라의 재래식 화장실이 떠올랐는데 화장실 앞에서 사용료를 받는게 달랐다. 사용료는 10실링이었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원 정도였다.

화장실 구경을 뒤로하고 길을 따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다. 철공소가 많았다. 그곳에서 들리는 쇠 자르는 커터기 소리, 용접 전기 스파크 소리, 망치 소리가 귓전에 웅웅 맴돌았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시야는 먼지로 뿌옇다. 골목 입구에 동네 사람 수십 여명이 모여 있었다. 웅성웅성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차에 짐을 싣고

있는 중이다. 차량 안테나에 나풀거리는 빨강 리본도 걸려있고 뒤에는 화환도 놓여 있었다. 한쪽에서 신랑인 듯한 사내가 서서 미소만 짓고 있다가 카메라를 보더니 한 컷 찍어달라고 한다. 사진 한 장을 찍어주며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잘 살 것을 기원했다.

자리를 옮겨 이동하던 중 길가 시궁창을 발견했다. 길옆 좌판에는 훈제 생선 같은 것을 팔고있다. 비릿한 냄새의 생선 덩어리는 덮는 포장도 없이 매대에 올려놓는데 상인은 파리 쫓기에 정신이 없었다. 주변은 온갖 오물과 파리 떼가 득실거렸다. 과연 그 많은 파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분명 시궁창에서 놀다 온 게 분명한데 파리가 먹다 만 걸 사다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골목의 민가는 막대기에 흙을 대고 얼기설기 엮어 벽체를 만들었고 지붕은 함석으로 이었다. 녹이 슬대로 슬어 금방 구멍이라도 날듯 위태로워 보였는데 골목 입구마다 젊은 청년들은 노 프라블럼 No problem이라는 뜻이 오락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게임은 역시 즐거움인가 보다.



©이정근\_3블럭-1



©이정근\_11블럭-1



©이정근\_13블럭-5

대여섯 명씩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사람 사는 마을 어느 골목이든 길 가운데 배수구가 있는데 이게 시궁창이다.

골목길은 발을 잘못 헛디디면 시궁창으로 빠질 것 같았다. 가파르거나 흙길 또는 나무막대기로 얼기설기 엮어서 그 위를 걸어가야 했고 공동 화장실은 자물쇠가 어김없이 채워져 있다. 골목길에 김숙이 들어가면 집집이 어린 애들이 뛰쳐나와 금방 시골벽적인 동네 골목길이 되었다. 촬영자인 본인의 시각으로 본 저들의 환경은 열악하다고 여겨졌지만, 아이들의 표정 어디에도 구김살 하나 없이 행복했다. 인간의 행복, 불행은 잘 발달한 문명으로만 결정됨은 아님을 다시 느꼈다.

길가의 염소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 악취가 심한 시궁창에서 채소 찌꺼기를 주워 먹고 있었다. 시궁창에는 오물과 세탁 허드렛물, 양치 후 버린 물 심지어 분노까지 섞였는데 채소 찌꺼기로도 배가 차지 않았던지 염소는 종이까지 씹어 먹고 있었다. 사람이 저 염소 고기를 먹는다면 과연 그 맛은 어떠한지 상상이 안 되었다.

골목길의 좁은 문 안으로 다닥다닥 붙은 예닐곱 가구를 보았다. 마을 안이 거의 그렇단다.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허름한 화장실 한 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아침이면 서로 먼저 일을 보려고 아우성친단다. 급한 나머지 시궁창에 배설물을 흘려보내기에 악취는 더 심한듯했다. 골목길의 시궁창 냄새는 코를 막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악취가 났으나 이곳을 방문 한이상 사람살이의 모습이 이다지도 다를 수 있을지 하는 마음에 골목을 누볐을지도 모른다.

정말이지 심여 분만 삶의 체험을 하라고 해도 손사래를 칠듯한 그런 곳이었지만 그곳도 사람 사는 곳임을 체험했다. 골목 체험을 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도 절감하였다. 브라질 로시나 지역의 파벨라 골목보다 몇 배는 더 심하다고 느꼈다. 도시에서 생활해 보겠다고 시

골에서 올라와 싸구려 집을 찾다 보니 이곳으로 밀려와 벌이와 직장도 없고 놀러앉아 살게 된 듯 하다.

카메라를 보고 사진 찍어달라며 손끝을 펴 보이는 철부지 아이들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났다. 어떤 골목길에서는 아이들 열댓 명이 어디에선가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다. 막대기를 기타인 양 들고 움직이는 아이들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골목길을 벗어나 위로 올라가니 지금은 열차 운행이 중단된 폐철길이 있었다. 이곳은 우간다로 연결되는 철길이란. 철길 양옆으로 노점상이 즐비했다. 주로 구제 물품을 팔았다. 철길 언덕배기 경사진 곳에서 헤진 누더기를 입은 나이 든 노숙인을 만났다. 피골이 상접한 노인은 밤을 지새우 누더기 이불과 비닐을 준비하고 있었다. 먹을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걱정이 앞섰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달리 차마 카메라 셔터를 누를 수 없어 그냥 지나쳤다.

한참을 걸어가다 시골벽적인 소리가 들리는 곳이 있어 발걸음을 옮겼다. 시골 장터의 약장수를 방불케 하는 선전과 관중 앞에 세명의 여성 댄스 파티가 흥을 돋우고 있었다. 음악 소리가 하도 흥겨워 나도 그들과 함께 잠깐 몸을 흔들면서 폰 영상에 담아 나왔다. 이동하면서 보니 길거리 음식 파는 곳이 많았다. 주로 밀가루 반죽을 하는 걸 보면 빵을 만들기 위함이었는지 지나치면서 구경만 하였다. 절까지 도로 좌,우측 석축 옹벽에 옷가지며 생필품을 걸어놓고 파는 모습도 보였다. 이곳 역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임을 체득하였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자연만을 꿈꾸고 앵글을 맞출 계획이었는데 의외의 장소를 체험하고 숙소로 향했다.

\* 후에 안 일이지만 이곳은 치안이 불안정해 무장경찰과 동행해서 방문해야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빈민가라든 사람이 사는 곳은 어느 곳과 다름없기에 무작정 방문했음을 밝힌다.



©박곡희\_월출산-봄



©박곡희\_구정봉 능선에서



©박곡희\_천황봉에서 바라본 구정봉

## 조물주의 그림일까, 자연의 선율일까 월출산 암봉능선

박곡희(여수)

월출산...  
처음으로 산사진을 시작한 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산  
그곳에 서면 빙하니 가슴이 뚫리는 산  
친구와의 추억이 새록거리는 산...  
내가 사는 곳에서 비교적 가까이 자리한 산  
앞으로도 오랫동안 발걸음 하고 싶은 산  
그런저런 이유로 가장 많이 오르내린 산이 되었다.



©박곡희\_사자바위에서

월출산은 남한지역의 대표적인 돌산으로 최고봉인 천황봉은 809m이며 국립공원 제20호로 노령산맥 줄기에 속한다.  
또, 달이 뜨는 산이라고 해서 월출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도 하며 등산코스는 경포대, 천황사, 산성대, 도갑사 그리고 최근에 개방된 대동제 코스가 있다.  
월출산을 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카메라 가방을 꾸린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일기예보 그리고 뒤따르는 설레임...  
산행 친구들과 도란도란 오르다 보면 어느새 땀방울이 촉촉이 배어 들고, 가쁜 숨소리조차도 서로를 바라보며 깔깔거린다.  
그렇게 쉬엄쉬엄 오르다 하늘을 쳐다보면 반짝이는 별들과 살짜기 얼굴을 내민 달빛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나뭇잎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시원한 바람과 땀방울이 얼굴을 간지럽히다 보면 어느새 포인트에 다 다르게 된다.  
등짐을 풀어놓고 한숨 고르며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산의 정

기와 맑은 공기 등복 들어마시며 아침을 맞이한다.  
어떤 날은 운해가 넘실거리고, 어떤 날은 여명 빛이 참으로 예쁘다.  
서터 누르는 손이 바빠져 간다.  
구정봉에서 바라보는 천황봉은 구름이 산허리를 휘어감고 쉬어가고 천황봉에서 바라보는 구정봉에는 운해가 얼굴바위를 쓰다듬으며 넘실 거린다.  
이렇듯 구정봉에서는 구정봉 대로의 맛이 있고, 천황봉에서는 천황봉 대로의 맛이 있다.  
그리고 산성대에서 바라보는 풍경 또한 격이 있다.  
기암의 암봉들이 가득한 월출산, 산정에서 바라보는 영암벌과 강진들 안 멀리 보이는 산그리메에 눈길이 머문다.  
봄에는 신록과 진달래 그리고 철쭉꽃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과 원추리꽃, 가을에는 암봉 사이사이에 붉게 물든 단풍들, 겨울에는 하얀 눈꽃과 아침 햇살에 붉게 물든 상고대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채워간다.



©박곡희\_월출산



©박곡희\_구정봉에서 바라본 천황봉



©박곡희\_산그리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매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산, 보일 듯 말 듯 애간장을 녹이는 운해에 휘감긴 봉오리, 여러 동물의 모습을 닮은 기암괴석들, 바람에 산들거리는 풀내음과 산새소리 그리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끔은 적막을 깨기도 하지만 산이 주는 그 아름다움에 꼭 빠져 본다.

언제 봐도 멋진 산이다.

하지만 멍멍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질 때면 약간의 실망도 하게 되고, 운해가 산정을 가득 덮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카메라를 꺼내지도 못하고 하산하는 날에는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또한 다시 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 하산길의 발걸음은 그리 무겁지만은 않다.

산사진 작가님들이 그렇게 느끼듯 산정은 오를 때마다 늘 무언가 하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고 그 아쉬움과 기암괴석으로 가득 차장한 멋진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리며 또 다른 연출을 담아 내기 위해 또 다시 카메라 가방을 꾸리게 한다.



©박곡희\_눈덮인 월출산(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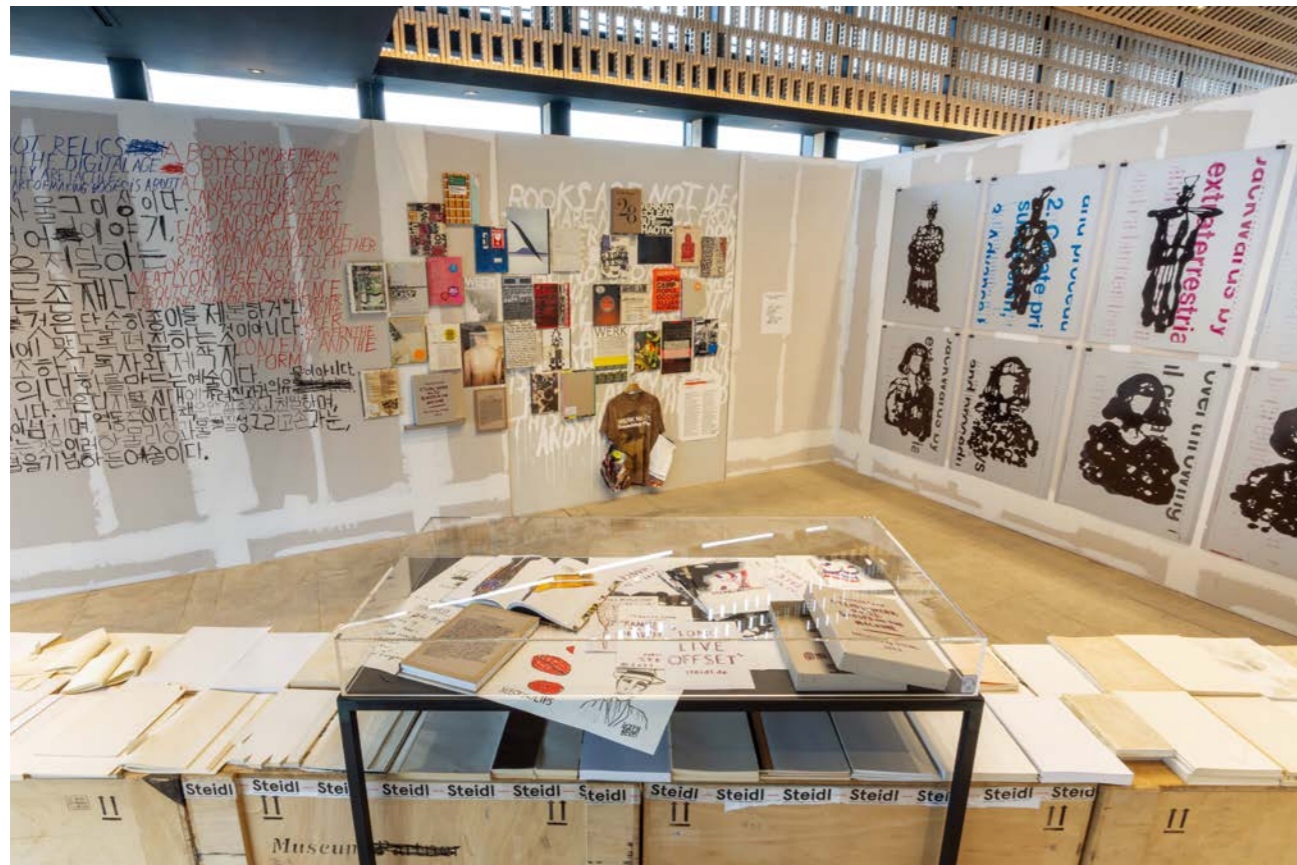
# 종이책 디자인의 전설을 만나다 슈타이들 북컬처 : 매직 온 페이퍼

글·사진제공 - 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나는 책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게 내가 출판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한 비결이었다."  
- 게르하르트 슈타이들 (Gerhard Steidl)

"슈타이들과 함께 책을 제작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커리어가 정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 세계사진협회 (World Photography Organisation)

"아름다운 종이는 나에게 최고의 사치이다. 완벽한 종이를 만지는 것에는 감각적인 무언가가 있다.  
세상 최고의 향은 방금 인쇄한 책에 있다." - 칼 라거펠트 (Karl Lagerfeld)



전시장 전경 4층 - 에어트 제공



게르하르트 슈타이들 © 2024 Werner Bartsch



슈타이들 © 2024 Cedric Fernández

그라운드시소 서촌에서는 작년 9월 출판계의 거장인 '게르하르트 슈타이들(Gerhard Steidl)'의 타협 없는 완벽주의로 만들어진 책들에 대한 <슈타이들 북컬처 : 매직 온 페이퍼>전시가 시작되어 올해 2월 2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슈타이들 책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라 평가받는 이 전시는 종이책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며 아트북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게르하르트 슈타이들이 직접 디렉팅했으며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그의 출판사인 슈타이들이 제작한 아트북, 문학, 매거진 등 1,000여권의 책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듣고, 향기를 맡는 등 모든 감각으로 느끼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완벽하게 아름다운 책 한권이 탄생하는 과정을 함께함으로써 슈타이들이 추구하는 책에 대한 가치와 메시지를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게르하르트 슈타이들은 용지와 책 커버를 직접 선택하고, 레이아웃과 디자인, 교정, 인쇄에 이르기까지 한 권의 책이 탄생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감독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독일의 대학 도시 괴팅겐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아트북 출판사, 슈타이들의 한 지붕 아래에서 일어나며 모든 책은 게르하르트의 손을 거쳐 완성된다. 1968년 게르하르트 슈타이들이 설립한 출판사 슈타이들은 수십 년 동안 책의 한계를 뛰어 넘고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는 데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수많은 예술가들이 슈타이들과 함께 자신의 작품을 더욱 완벽한 방식으로 세상에 선보이고 있다. 슈타이들의 꿈은 예술가와 작가의 꿈을 실현하고, 책으로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한 합리적인 가격의 민주적인 예술품인 '멀티플(아트북 오브제)'을 선보이며, 10여 년의 제작 기간 끝에 완성된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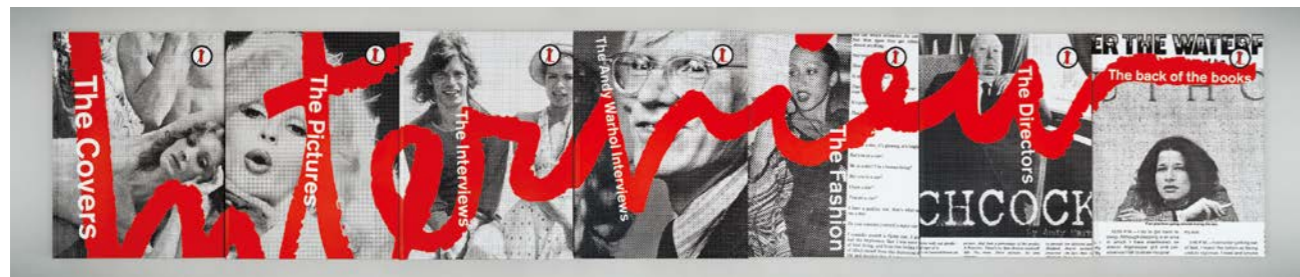
그때 그리고 지금, 에드 루샤 © 2024 Steidl



비반 뮤지엄, 다이나타 싱 © 2024 Steidl



오래된 공정은 죽지 않는다, 버켄스탁 © 2024 Steidl



인터뷰: 팝 컬처의 수정기술, 앤디 워홀 © 2024 Steidl

미안 허스트(Damien Hirst)의 '파머시 런던 Pharmacy London' 멀티플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또한, 펜디 (Fendi), 돔 페리뇽(Dom Perignon) 등 브랜드의 의뢰로 만들어진 '팩토리 북'이 전시되고, 특히 브랜드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버켄스탁(Birkenstock)의 멀티플 '오래된 공정은 죽지 않는다(Old Mills Never Die)'가 최초로 공개되며,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에어트

2층부터 4층까지 대형 건물 전체를 이용한 이 전시의 구성은 5가지 섹션으로 되어있는데 주관사인 에어트 (AIRT)의 자료를 참고로 요약해 안내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섹션인 <Books/Multiples>는 아트북 오브제의 전시 공간이다. 게르하르트 슈타이들은 1968년 출판사를 설립한 이후로 상자, 슬립 케이스, 심지어 나무 상자나 여행 가방에 담긴 여러 권의 책을 꾸준히 제작해오고 있다. 바로 슈타이들이 예술품의 정점이라고 믿는 '멀티플(Multiple)'이다. 멀티플은 아티스트의 컨셉이나 의도에 따라 산업적으로 제작되고, 판매를 위해 작가의 서명이 된 일련의 한정판 예술품으로서 예술가의 무결한 예술성은 지키면서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접하게 해준다.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 앤디 워홀(Andy Warhol),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 에드 루샤(Ed Ruscha), 로버트 프랭크(Rober Frank) 등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슈타이들과 기획부터 모든 작업을 함께하며 그들의 '멀티플'을 탄생시켰다. 두 번째 <500 Books>에는 500권의 엄선된 슈타이들의 책, 그리고 2006년부터 2023년까지의 아트워크가 준비되어 있다. 수많은 저명한 사진가들과 함께 제작한 사진집들은 사진의 시작부터 현대의 주요 사진가들까지 사진의 전체 역사를 아우르며, 예술, 다큐멘터리, 보도사진 등 사



런던 약국, 데미안 허스트 © 2024 Steidl



펜디 by 칼 라거펠트, 칼 라거펠트 © 2024 Steid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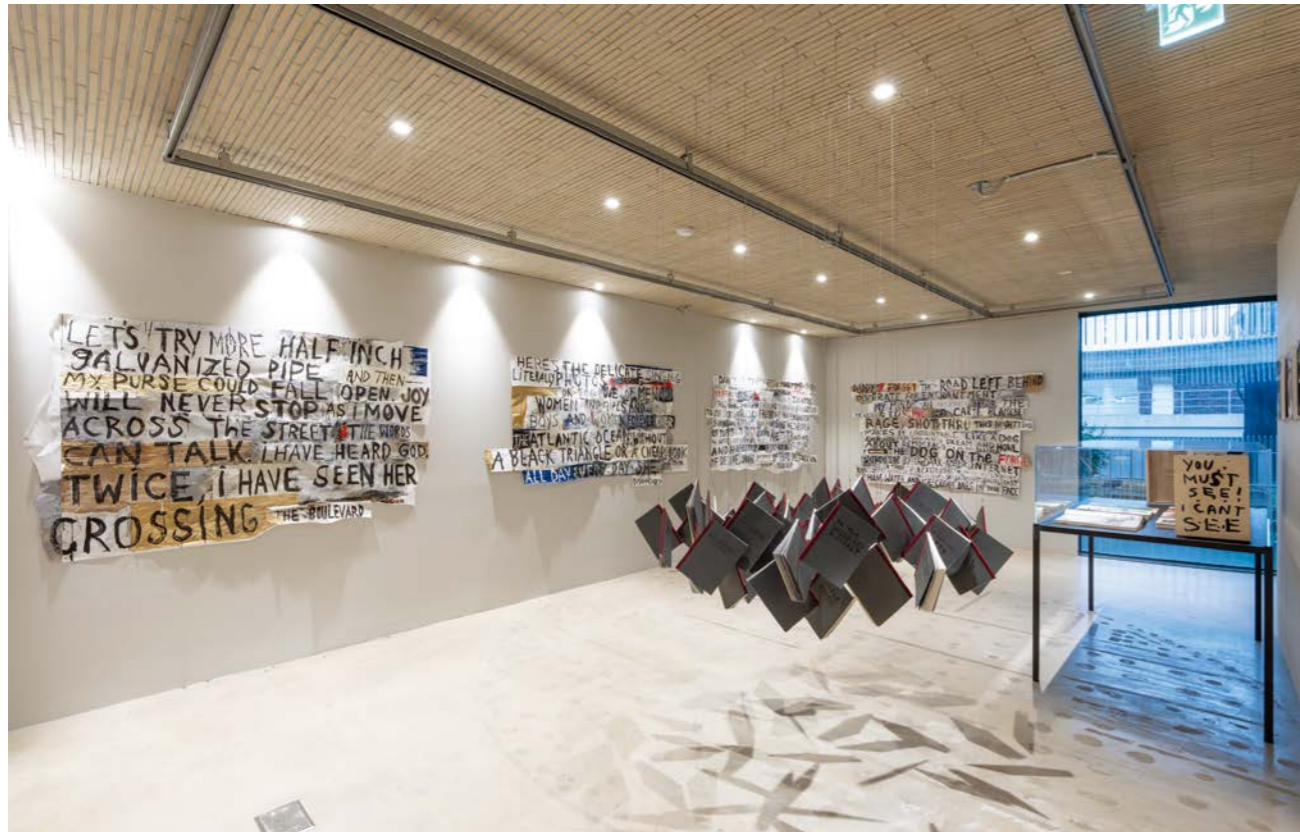


핫 드림, 짐 다인 © 2024 Steidl

진 표현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리고 최고의 시각 예술가들이 슈타이들과 함께 작업한 아트북과 그 안에 담긴 아트워크들이 전시된다. 세 번째인 <See, Touch, Hear, Smell, Feel>는 제목 그대로 종이, 인쇄, 제본을 경험하고 감각으로 느끼는 공간이다. 슈타이들빌에서 한 권의 책이 탄생되기까지의 여정을 보고, 만지고, 듣고, 향을 맡고, 느끼며 함께 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Stiedl Library>는 슈타이들의 책들을 직접 읽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눈으로 보기만 하는 예술품이 아니라 슈타이들의 책을 직접 찾아 꺼내서 슈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명 아래로 가져가 마음껏 볼 수 있다. 괴팅겐 슈타이들 출판사에 방문하는 아티스트들을 위한 대기공간인 슈타이들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재현했기에 마치 슈타이들 라이브러리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끝으로 <Stiedl Cinema>에서는 슈타이들의 다큐멘터리 필름, 스크린 테스트, 인터뷰 영상들을 만날 수 있다. 슈타이들이 어떤 철학과 가치관으로 평생 책을 만들어왔는지, 그리고 슈타이들 빌에서의 책을 만드는 과정을 알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상과 그와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세계적인 예술가와 출판가의 만남을 깊숙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 게르하르트 슈타이들 (Gerhard Steidl)

게르하르트 슈타이들은 18세에 그래픽 아트와 포스터를 위한 출판사와 스크린 인쇄 작업장을 설립했다. 오늘날 슈타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현대 사진집 프로그램과 엄선된 문학 작품을 독일어로 출판하고 있다. 2020년 슈타이들은 사진 작가가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로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즈에서 사진공로상을 수상했으며, 마인츠의 국제 구텐베르크 협회로부터 구텐베르크상을 수상했다. 2021년에는 니더작센주 대십자 공로훈장과 독일 출판인상을 받았다. 슈타이들은 2021년 6월에 개관한 쿤스트하우스 괴팅겐의 설립자이자 창립 이사이며 2022년에는 독일 힐데스하임에 있는 응용과학예술대학의 초빙 강사로 활동했다. 2023년에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패션계에서 가장 중요한 독일인 50인'에 선정되었으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리처드 벤슨 강연을 개최했다. 2023년 8월 슈타이들은 독일 사진 협회의 정회원으로 임명되었다.



전시장 전경 3층 - 에어트 제공



전시장 전경 3층 - 에어트 제공



전시장 전경 4층 - 에어트 제공

2025년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사진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해주고 프린트 디렉터이자 사진작업도 하는 사람이기에 사진가들과 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회원들에게 좋은 전시를 선정하고 안내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서 이 페이지를 담당하기 시작한 것이 2015년이었는데 결국 10년을 넘게 되었다. 구태의연하고 어려운 단어의 나열없는 친근하고 깊이 있는 글을 쓰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요즘에는 관람자로서 개인의 느낌을 역설하기 보다는 작가와 작품을 가장 잘 아는 기획자와 큐레이터의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로 바뀌게 되었다. 그 안에서 어려운 용어들의 단순화와 더 필요한 정보들의 추가를 통해 이 글 하나로 전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기를 바라며 전시를 선정하고 원고를 써 왔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정확한 정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깨달은지라, 이제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해서 좋은 전시와 사진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해본다. 10년간 믿고 의뢰해 준 분들과 그간 글을 보아 온 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하는 마음을 꼭꼭 눌러 전한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구매상담  
ID: 신지스튜디오클럽  
010-2253-2786

행복한 사진이  
진짜이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studioclub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실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정 우수업체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거래중



전국 예술학부 1,000여학과 남품

# 툰 호수 바라보며 창작 아이디어 얻는다 파라디슬리 아티스트 레지던시

글: 사진제공 \_ 김정현(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 교육전문위원회 위원, 사진예술 아카데미 지도교수)



레지던시 전경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날 해돋이를 하면서 항상 이런 꿈을 꾸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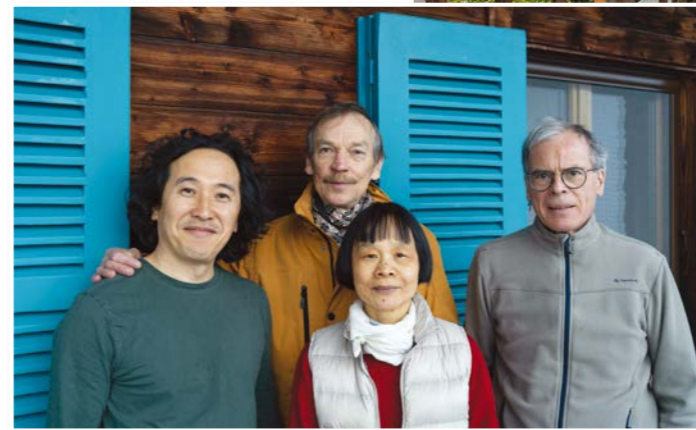
하지만 이런 꿈을 현실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한 번쯤은 작업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

다.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이 레지던시를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이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이다.

필자 또한 해외 레지던시의 경험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맞았다. 예



베란다 풍경



레지던시 참여 작가들

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부터 나의 작업에 대한 생각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레지던시를 소개하는 목적은 삶의 변화와 작가로서 자신의 작업에 더욱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파라디슬리 아티스트 레지던시(Paradiesli Artist Residence)는 스위스 중앙에 있는 툰호수(Thunersee) 북쪽의 시그리스빌(Sigriswil)이라는 조용한 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유명한 융프라우(Jungfrau)와 체르마트(Zermatt)를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인터라켄(Interlaken)과 인접하고 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 중 하나로 손꼽히며, 카메라를 들고 나가면 어디서든 멋진 풍경을 담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맑은 공기와 하이킹 코스는 물론, 푸른 호수와 웅장한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매년 세계 각지에서 예술가들이 찾아와 휴가를 즐기기도 하며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도시와 단절되어 자연이 주는 순수한 환경에 흠뻑 젖어 마치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 들 만큼 그동안 살면

서 쌓인 내면의 먼지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새로운 감정을 쌓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필자 또한 이곳에서 매일 같이 산과 들로 산책을 즐기며 많은 예술적 영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천혜의 환경에 위치한 파라디슬리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작품 활동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매년 4명 내외의 작가들을 초청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이 머물 숙소와 작업공간 역시 잘 갖춰져 있다.

작업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작업실은 숙소의 1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창밖으로 툰호수(Thunersee)와 니센(Niesen) 산이 한눈에 보이며, 창가에는 항상 따듯한 햇살이 들어온다. 두 번째 작업실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그곳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다. 그리고 레지던시 참여 기간 동안 완성된 작품을 전시할 공간과 회의실도 갖추고 있다.

숙소는 1인 1실을 기준으로 침대와 소파 등이 갖춰져 있으며, 개인적인 글쓰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베란다





레지던지에서 보는 풍경

에서 바라보는 투호수의 노을은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만든다.

레지던시 기간에는 개인적인 작품 활동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전시회나 워크숍, 강연 등이 열리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다. 그리고 현지 아티스트들과 교류도 가능하다. 또한 같은 기간 입주 작가들과 함께 인근의 숲과 들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거나,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참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술적 감각은 한층 더 깊어지며, 예술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파라디슬리 아티스트 레지던시의 신청 자격은 사진 뿐만 아니라 영상, 설치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하거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지원 자격은 충분하다. 단 독립적으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영어 또는 독일어로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하면 더욱 유리하다. 그리고 예

술 활동 경력이 짧더라도 열정과 창의성을 갖추기만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은 지원자들의 창의성과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지원자는 포트폴리오와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자신의 작업 계획과 이곳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다. 선정된 작가는 매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레지던시에 머물면서 작품활동을 하게 된다.

필자의 경험으로 이곳은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라 생각한다. 이 레지던시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 속에서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예술적 확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진작가로서 성장과 새로운 시각을 얻고 싶은 분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한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자는 항상 노력하는 자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새해에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한 번쯤 레지던시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일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몇 배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제2작업공간 내부



제2작업공간



숙소내부



작업공간 내부

# 허물 벗고 사는 생명력 VS 맹독 가진 죽음의 신 두 얼굴의 뱀

글: 사진제공\_최승연



뱀. 신비로운 존재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올해가 뱀띠해다. 용이 꼬리를 감추고 뱀이 머리를 들고 나오는 때 이므로 이때 태어난 사람은 뱀띠가 된다. 새로운 띠가 언제부터 시작 되느냐는 기준점을 잡는 데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동지를 기준으로 삼고 어떤 이들은 음력 설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심지어 입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 주장 모두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동지를 기준으로 삼는 이들은 동지가 겨울의 끝이고 이때부터 봄이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동짓날을 작은 설로 기념하며 일 년의 시작으로 보았는데 이는 밤이 가장 긴 동지 이후부터 낮이 차츰 길어지기 시작하므로 이날을 새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진짜 설을 음력 1월 1일로 하여 이날을 새해의 시작으로 기준 삼았다. 이것은 삼국시대부터 있던 기준이다. 봄이 시작되는 것으로 따진다면 말 그대로 입춘 기준이 설득력이 있다. 1년을 24절기로 나눌 때 봄이 시작되는 입춘을 새로운 해의 출발로 보는 주

장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띠에 따라 사람의 기질도 나타나고 운명도 달라진다는 속설이 있다. 역술가들은 뱀띠는 신중하고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평화스럽고 여유자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한다. 타인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모든 일을 스스로 이뤄내려고 하는 자수성가하는 경향도 있다. 차분하고 분별력 있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강점이지만 소유욕이 강하고 질투가 심하고 다소 차갑고 게으르며 인색하고 바람둥이 기질도 있다고 알려진다.

뱀은 또 생명력이 강한 동물이다. 목이 잘려도 그 머리가 한동안 눈을 움직이거나 입을 벌리고 그 몸통이 움직인다. 중국에서는 독사를 요리 하던 요리사가 몸통으로부터 분리된 독사 머리에 물려 사망한 사

건도 있었다. 중국 절강성에서는, 뱀을 어설피게 죽이면 반드시 복수하러 찾아온다는 속설이 있다. 뱀을 죽일 때 반드시 머리를 깨서 확실히 해야 그 뱀이 살아나서 복수하러 찾아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에 구렁이가 나타나면 집 지키는 신이라 숭배했다. 아직도 나이 많은 사람 중엔 그렇게 믿는 이가 많다. 뱀 꿈을 재수, 재물, 태몽을 상징하는 길몽으로 해석한 것도 뱀을 긍정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꿈에서 많은 뱀을 보면 일이 풀리고 뱀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고 풀이한다. 뱀이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꿈이나 구렁이에 물리는 꿈은 큰 인물이 될 아이를 낳는 태몽이라고 믿는다.



국제 보건 기구 상징 마크. 치유의 능력이 있는 뱀이 그려져 있다.

천년을 산 뱀은 용이 된다며 뱀을 용과 함께 신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는 뱀이 십이지신의 하나로 윤희, 영생, 풍요와 번영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뱀을 보면 놀라고 어딘지 모르게 꺼림칙해 한다. 뱀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면이다. 우리 민속 설화를 보더라도 뱀은 사람을 해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옛날 어떤 바닷가 마을에는 머리 셋 달린 이무기에게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치고 풍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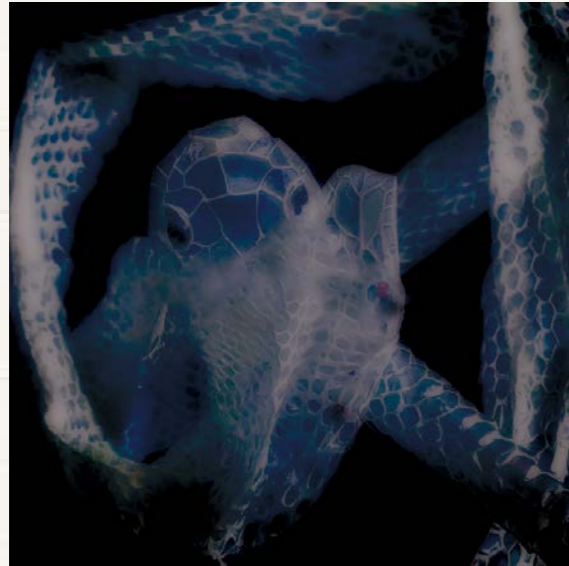
딸을 바쳐야 했던 집에 한 총각이 나타나 자신이 이무기 뱀을 처치해 버리겠다고 장담했다. 처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인 뱀



뱀과 처녀의 설화 간직한 백일홍



뱀의 허물, 뱀은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코브라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올사년. 푸른 뱀의 해이다.

녀로 변장한 총각은 이무기가 나타나자 칼을 휘둘렀으나 이무기는 머리 하나만 남긴 채 도망갔다.

총각은 처녀와 결혼을 약속하고 100일만 기다리면 뱀을 처치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만약 흰 깃발을 단 배로 돌아오면 승리한 것이요, 붉은 깃발을 단 배로 돌아오면 주검으로 돌아오는 줄 알라고 이르고 떠났다.

처녀는 100일이 되기를 기다려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수평선에 나타난 배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절망한 처녀는 몸을 바다에 던지고 말았다.

총각이 뱀을 죽이고 흰 깃발을 달았으나 뱀이 죽어가면서도 흰 깃발을 붉게 물들었던 탓이었다. 총각이 슬퍼하며 처녀를 묻었는데 그 무덤에서 이름 모를 꽃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백일동안 기도하던 처녀의 넋이 꽃으로 피어났다 하여 백일홍이라 불렀다는 얘기가.

또 다른 한국설화에서는 뱀을 잡아먹으려 하던 구렁이를 활로 쏘나 그녀가 곤경에 빠진다.

구렁이를 죽여 뱀을 살린 나그네는 해가 저물자 한 여인이 사는 집에 유숙하였는데 밤에 자다보니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칭칭감고 있는

게 아닌가. 구렁이는 나그네에게 "네가 내 남편을 죽였으니 나는 너를 죽여 원한을 풀겠다" 말했다. 나그네는 "뱀이 불쌍해 그랬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자 구렁이는 "저기 절에서 종이 세번 울리면 풀어주겠다"며 상원사를 가리켰다. 절의 종이 울릴 시간대가 아니었기에 나그네는 어쩔 수 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의 종이 세번 울렸고 구렁이는 나그네를 풀어주었다. 이상히 여긴 나그네가 아침에 절에 가보니 뱀 세 마리가 쇠종을 머리로 때리고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는데 나그네가 살려준 뱀과 그 새끼들이었다는 얘기가.

12 띠 동물 가운데 뱀이 용과 함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송배의 대상까지 된 이유가 무엇일까? 뱀은 사람을 해할 수 있어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껍질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므로 생명력 강한 존재로 생각했다. 고대 이집트에서 코브라를 신성시했고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뱀은 신적인 존재로 인정받았다. 세계 곳곳에서 뱀을 신성시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곳이 많은 이유다. 그러나 서양 문명을 대표하는 기독교 성경에서는 뱀이 이브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인 사악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에서 뱀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기록된 것은



뱀 세마리가 머리로 올렸다는 전설 간직한 상원사 동종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동물이라는 그 속성에 따른 것이리라.

이처럼 뱀은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의 강력한 권능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다. 뱀이 물고 온 약초로 환자를 살려낸 그리스 의사 아클레피오스가 문장으로 사용한 뱀과 지팡이가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심볼마크인 것은 뱀의

신비한 치유력을 상징한다. 이는 성경에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 놋쇠로 만든 뱀을 지팡이에 메달아 바라보게 하여 치료해 살린 것과도 연관이 있다. 뱀의 해 상처받은 지구촌 곳곳이 치유되기를 희망해본다.



모세의 놋쇠 뱀, 불뱀에 물린 이들이 이 놋쇠뱀을 보고 살았다고 한다.



일곱마리 뱀을 새긴 앙코르와트 조각상

# 산악사진분과위원회 2024년 감사보고 및 촬영회

글\_박광미(산악사진분과위원회 사무국장)



©정형식\_산악사진분과위원회 단체사진1



©이성길\_바다이야기



©오재용\_청도 소싸움

산악사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성길)는 지난 2024년 12월 14일부터 15일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청도와 경주 감포에서 2024년 산악사진분과위원회 감사보고 및 촬영회를 개최하였다. 정형식 부위원장의 리딩으로 청도 5일장의 활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전국에서 유명한 청도 소싸움 경기장으로 이동 소싸움의 현장을 찾아 생동감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소싸움 경기장을 뒤로하고 자연동굴을 그대로 활용해 적절한 습도와 기온으로 와인숙성이 최적화된 곳을 찾아 촬영을 하였다. 이곳은 터널 내 근사한 조명과 다양한 조형물로 이루어져 사진 촬영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또한 청도의 명물인 반시와 꽃감, 감 와



©이진우\_겨울바다



©정형식\_산악사진분과위원회 단체사진2

인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청도 5일장을 뒤로 하고 경주 감포로 이동 저녁식사 후 바다 장노출 촬영을 가졌다. 이후 2024년 감사보고가 있었다. 감사 보고 후 2025년 사업계획 안건 상정으로 산악사진분과 전시(대한민국사진축전 부스전), 분기별 남해 촬영회, 도봉산과 북한산 촬영회, 간월재 촬영회, 번개출사 등 사업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튿날 문무대양릉 일출명소를 찾아 촬영 해변의 풍경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 겨울바다의 한가로움을 뒤로 하고 산악사진분과위원회 위원들 모두의 건강과 2025년 새해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대하며 2024년 산악사진분과위원회 촬영회를 마무리하였다.



©박곡희\_겨울바다



©방성공\_바다이야기

# “사진예술아카데미, 변화의 바람 되길...”

## 유수찬 이사장 사진작가과정 제4기 기획전 '축사'

글 사진 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제4기 졸업전 개전식 테이프 커팅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내빈들



축사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

지난 2월 11일(수)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6에 있는 갤러리 라메르 3층 루치관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 사진예술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4기(회장 이석준) 기획전이 '시물라크르(Simulacra)'라는 주제로 41명의 작품을 전시했다. 내빈과 사진작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진작가협회 김요한 교육부장의 진행으로 개최했다.

이용옥 총무가 내빈을 소개했다. “유수찬 이사장, 백만중, 이향룡, 김시묵, 최차열 부이사장, 이덕만 감사, 이승자, 윤은숙, 여상현 교수, 배택수 상임이사, 한희동, 박혜섭, 이막래, 김부연, 정재문, 김영옥, 이내교, 이성록, 신경애, 김정금, 강돈영 이사, 문제민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이운재 여행사진분과 위원장, 윤지한 촬영지도위원회 부회장, 전신곤 사회과학대 이사장, 홍창의 여주지부장, 김동형 충주지부장, 박국인 강서구지부장, 이근숙 구로구지부장, 박용하 안양지부장, 백승의 제1기 아카데미 회장, 김두철 제2기 회장, 윤홍선 제



축사를 하는 조주은 교수



축사를 하는 문제민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을 하는 제4기 회장 이석준

3기 회장, 이영섭, 이이규 자문위원, 박순정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추윤 전)신한대 사회과학대학장, 김형준 사무처장, 김가중 사진방송대표, 최상기 리플 대표” 외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유수찬 이사장은 축사에서 “아카데미는 저희한테 상당한 바람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지금 부는 바람은 거대하게 느끼지는 않을지 몰라도 조금씩 협회에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으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카데미의 신성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협회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주어 협회 발전의 주춧돌이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민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존경하는 유수찬 이사장님께서 가장 열정적인 사업으로 추진한 아카데미 강좌가 벌써 4기를 맞았습니다. 이 기획전에 참석하신 4기 여러분은 한국사진작가협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1년 동안 배우고 더 열심히 익혀서 한국 사진작가의 위상을 세계에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축사했다.

조주은 교수는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양성하고 미래의 사진작가를 발굴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오늘날 사진이 단순한 기록의 수단을 넘어서 미래를 표현하는 예술의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은숙 교수는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4기의 기획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여상현 교수는 “요즘 대학교들도 졸업 전시를 한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니까 학생들과 견줘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매년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배택수 상임이사 교수는 “졸업하시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닌,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작품 활동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축사했다.

이석준 4기 회장은 “저는 수십 년간 사진을 찍어 오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풍경 사진에만 몰두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여겨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에서 배운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준 거 같습니다. 자기만의 사진 세계를 결정하는 현대 사진의 흐름을 제시하여 주었고 밝혀주신 사진예술아카데미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현대 사진의 다양성과 최근 사진예술의 판도를 깊이 재조명해 주신 조주은 교수님, 김정현 교수님, 여상현 교수님, 배택수 상임이사님 등 훌륭한 교수님들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4기 졸업생들이 사고의 틀을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변화를 작품으로 확인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획 작품 전시의 주제는 시물라크르입니다. 거짓처럼 보이지만 진실이 담겨 있고 진실처럼 보이지만 거짓의 요소가 담긴 그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하고자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전시를 관람하시며 브로 싱글의 작품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경과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부이사장, 교수, 재학생 대표회장, 아카데미 1기, 2기, 3기 회장 등이 개전식 테이프 커팅을 했다.

# 서울특별시지회 회원전 성황리에 개최

## 회원 창작 열정 빛났다. 관람객 발길 이어져

사진 오건호(보도사진분과 부위원장, 홍보위원회 사무국장)



내빈 및 임원들과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서울특별시지회 회원전 개전식이 12월 19일(목) 목동 예술인센터 4층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회원전은 서울특별시 각 지부에서 출품된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박국인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전식이 진행되었다. 개전식에는 유수찬 이사장, 백만중 부이사장,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 이경희 수석지회장, 김상수·김성겸·임병훈 부지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유수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멋진 작품을 선보여주

신 모든 작가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진 진흥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원전은 회원들의 창의적 역량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사진 예술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랑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에서는 회원전에서는 우수작품상 수상자로 김재호(동작구지부), 이현규(마포구지부), 최숙자(송파구지부) 작가가 선정되어 상상을 받았다. 수상자



신규 초대 추천작가 인준서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회원전 우수작품상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과 백만중 부이사장



서울지회 단체 기념촬영

선정된 이들은 뛰어난 작품성과 창작 활동을 통해 2024년 제6회 회원전에서 최고의 작품을 인정받았다. 또한 각 구 지부별 1명씩의 작가를 선정해 은 뱃지를 수여하며 많은 회원이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2024년 신규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초대 및 추천작가에 대한 인준서 수여식도 진행되었다. 신규 초대작가로는 이경희, 김화연 작가가, 추천작가로는 유정삼 작가가 인준서를 받았다. 이번 회원전은 서울 지역 사진 예술가들의 교류와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원전 전시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개성을 가진 작품들이 소개되었으며, 관람객들은 작가들의 노력과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12월 21일(토)에 종료되었으며, 행사 기간 동안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

### 회비납부 안내 사항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사년 새해에도 늘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025년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시지회 및 지부 회비납부(회원님께서 소속한 지회, 지부에 납부)
- 지회·지부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156-2082-01
- 서울 구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본 협회소속 서울회원 : 연회비 10만원 본회에 납부 (국민은행 031-25-0001-564)
- 문의 및 회비담당 : 재무팀장 조윤숙(02-2655-3135)
-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 월간 한국사진 발송 중단(회원님들의 회비 등으로 제작)
- : 광역시지회, 지부 운영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 : 회원 입회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2년 이상의 회비 미납시 정권
- 정권 후 1년 이내에 회비 미납시 제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대사진연구회 창립28주년 회원전 개최

## 회원 소통의 장, 주제는 '바람 그리고 기다림'

글, 사진 김부연(중구지부) 현대사진연구회 회장, 본부이사



현대사진연구회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인사말을 하는 김부연 회장(본부 이사)

해운 작품을 이번 현대사진연구회 창립28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024년 12월 4일 양재 aT센터 전시장에서 개최하였다. 전시 오프닝 행사는

유난히 무더웠던 2024년의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을 맞아 아름다운 단풍을 보기도 전에 겨울이 다가왔다. 이번 현대사진연구회 창립 28주년 기념으로 회원전을 맞이하면서 회원들 모두 상기된 표정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다.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 전시가 늦어지고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사진창작활동을

2024년 12월 5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오랜시간 한국사진작가협회 발전에 협회 회원으로서 또한 입회를 위해 고생하였던 회원 모두의 노력으로 지금의 현대사진연구회가 지속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전시는 현대사진연구회 발전을 위해 힘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람 그리고 기다림”이란 주제를 가지고 독특한 시각과 생각들이 표현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작품으로 표현해 서로 소통하고 예술인 정신을 공유하는 전시였다. 또한 사진이 좋아 하나의 마음으로 전시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전시에 유수찬 이사장의 격려사와 홍창일 고문의 축사와 함께 현대사진연구회 고문들과 회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를 하였으며, 회원들 모두 이번 전시를 계기로 사진에 대한 그 누구보다도

열정과 함께 창작열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한국사진작가협회 역사와 함께 현대사진연구회 또한 창립50주년, 100주년 전시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며, 다시 한번 이번 전시회를 위해 고생한 회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현대사진연구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김원규 자문위원, 제68회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

## 본회 이사 역임한 원로작가 '사진인 위상 높여'

출처 시사위장=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제68회 전라남도 문화상을 수상한 김원규 자문위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원규 자문위원 및 문화상 수상자들 단체 기념촬영(전남도 제공)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지난 12월 16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 6명에게 전라남도 문화상을, 예향 전남의 명성을 드높인 예술인 8명에게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지정서를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전남예총 임점호 회장, 전남문화원연합회 김봉수 회장과 전남예총 지회장, 수상자 가족, 지인 등이 참석했다.

『제68회 전라남도 문화상 시상 및 전라남도 명예예술인 지정서 수여식』에는 지역 문화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라남도 문화상에 문학 분야에 시인 강성남(72), 소설가 김탁환(56세), 예술 분야에 사진작가 김원규(75), 국악인 윤진철(59), 화가 박인희(67), 음악가 김정호(56)가 수상 영예를 안았다.

예술분야 사진작가 수상을 한 본 협회 김원규 사진작가는 전남을 대표하는 원로 사진작가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여수지부장, 전라남도지회

장, 본부이사, 운영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지역 사진예술 발전에 앞장섰으며, 영·호남 사진인의 화합의 한마당인 사진교류전을 18회째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대한민국지방자치 박람회 우리마을 사진전시회를 개최 사진을 통해 지역 주민간 소통 강화에 힘썼다. Long Time의 여정 개인전 개최를 하였으며, 전남도사진대전 대상과 한국사진 문화상 출판상 등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문화상은 1956년 제정돼 올해 68회째다. 예향 전남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지역 문화예술가 381명을 발굴,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는 “문화상과 명예예술인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과 창의성으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은 영예로운 상”이라며 “문화예술에서 희망을 찾고, 문화예술로 부강해지는 ‘남도 문화 융성 시대’를 여는데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ttp://dongilframe.alltheway.kr/

동일액자

웹하드주소 www.webhard.co.kr  
웹하드 ID: dongil6444 / PW: 6444  
dongil6444@hanmail.net

- 하드락액자(광학필름)
- 디아섹액자(아크릴)
- 메탈액자(알루미늄판)
- 사진출력 및 기본수정

“작품에 기술을 더한 액자와 사진출력”  
대한민국사진대전, 각종 전시회 제작

대표문의 010-6462-6266 · 다음 검색창에 전주동일액자 를 검색하세요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4년 12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30대적립금(2023.3월~3월말) : 76,698,685

계 : 1,186,588,371(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309,100,000 (3,091명/발전기금100,000/인)

-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 ② 2018년 계 : 53,200,000
- ③ 2019년 계 : 100,900,000
- ⑤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 ⑥ 2021년 계 : 27,700,000
- ⑦ 2022년 계 : 32,200,000
- ⑧ 2023년 계 : 16,900,000
- ⑨ 2024년 계 : 25,900,000
- ▷ 2024년01월(50명) : 5,000,000
- ▷ 2024년03월(36명) : 3,600,000
- ▷ 2024년05월(14명) : 1,400,000

- ▷ 2024년07월(50명) : 5,000,000
- ▷ 2024년09월(39명) : 3,900,000
- ▷ 2024년11월(70명) : 7,000,000

○기타 계 : 79,486,905

-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81,623 (29대 누계)  
24,834 (30대 누계)
-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17,034,173 (29대 누계)  
25,873,851 (30대 누계)
-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 ▷ 이자(임차보증금) : 8,000,000 (30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 (b)

-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 (목동, 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786,588,371 (a-b)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영중(진해)사무국장 부친 별세 별세 2024년 12월 9일 발인 2024년 12월 11일

오고의(청주)자문위원 별세 별세 2024년 12월 16일 발인 2024년 12월 18일

**신비의섬 제주**  
제주도 촬영 가이드 권기갑  
연락처 : 010.3696.5202

**제주도 풍경 및 장노출 촬영 안내**  
제주도 촬영 : 계절별 하루 10시간 기준 차량 5인승 4명까지 포인트 안내 기름값 포함 20만 원  
여름철 : 6월~9월 오전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오후 4시부터 일몰까지 (하루 시간이 긴 관계로)  
촬영 오실 때 : 삼각대 4대까지 무료 대여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 4명 이상 차량 11인승(30만 원)  
제주도 장노출 촬영 및 스토리 작업 (초보자 및 전문가 별도 촬영 지도) "촬영 전문 지도위원"

대한민국 사진전문잡지 최대발행 부수 - 매월1만부

# 1만명에게 보내는 초대장!!

삼림 한국사진작가협회 양천우체국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07995

**30만원으로**  
전시초대도, 사진작품도 게재

2023. 12. 06. PM.15:00  
I · N · V · I · T · E

© Yoo Su Chan

2023. 현재 우편엽서 125×175mm 기준 1통 발송비 400원

■ 게재 방법 안내

- 전시일정 사항, 작가노트, 전시작품 원본 15컷 이내 - 전월 20일 이내 전달요망 (전시 한 달 또는 두 달 전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031-25-0001-564) 예금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전달 이메일 sss0244@naver.com · 게재 된 월간 한국사진 20부 배부
- 게재 문의 02-2655-3131 (또는 편집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Time Story – 사진 속의 시간 이야기

Photo Art Korea展

전시일시 2025년 2월 12일(수) ~ 2월 18일(화)  
 전시장소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2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0길 11-4 / Tel.02-733-4448)  
 참여작가 김용열, 국향숙, 오금희, 이건화, 장옥선, 최은연, 최은자  
 작품지도 김용열(지도강사)

우리가 하는 사진을 설명한다면 나는 눈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인간이 구사하는 언어는 말과 글로 표현하지만 사진은 시각이다. 바로 눈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은 절대적으로 보는 사람과의 소통을 전제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략>  
 사진은 작가의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관객과의 대화 또한 시각적 언어로 관객과 하나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Photo Art Korea(포토아트코리아) 작가님들의 이번 전시를 갖는 의미는 각자의 독창적이고 강력한 시각적 언어로 표현된 작품들에서 관객들의 감성을 끌어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 Gallery 투고 안내

Gallery에 게재된 사진전시회는 사진전문 잡지인 월간 한국사진에서 본 협회 회원들 뿐 아니라 사진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사진전시를 소개하여 직접 관람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게재된 사진전시회는 본 협회 회원이라면 무료로 진행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Gallery 사진전시회 올리는 방법

1. 대표작 1~2점, 간략한 작가노트 A4 1/3분량.
2. 전시제목, 전시장소, 전시날짜, 전시작가 순으로 작가노트에 삽입하여 제출요망.
3. 데이터 올리는 곳  
 : 웹하드 접속 후 아이디 kpass / 패스워드 kpass - 무료 갤러리 투고 폴더에 투고자명 폴더 생성 후 업로딩  
 : 본 협회 이메일 koreapask@daum.net 로 무료 갤러리 투고자명으로 데이터 업로딩
4. 업로딩 일자: 익월 게재 희망시 전월 3번째 주 금요일 이전까지 데이터 업로딩 요망  
 (ex. 2월호 게재 희망시 1월 18일 이전까지)
5. 단, 투고원고가 너무 많을 시 임의 편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게재 문의. 02-2655-3131

# 제41회 제천 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2025년 2월 10일 소인유호



- 출품자격 제한없음(대한민국 전 국민)
-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작
- 작품규격 흑백 / 칼라사진 11x14인치(장정블로) (입상 및 입선자 3000pix이상 제출)
- 출품수량 1인 4점 이내
- 출품료 1인당 20,000원 (작품뒷면에 화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접수마감 2025년 2월 10일 소인유호
- 접수처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 247 행복한 사진공작소

### 문의처

지부장 010-3454-0102  
 사무국장 010-2667-2107

- 심사일 2025년 2월 15일(토) 예정 (공개심사)
- 심사발표 2025년 2월 17일
- 시상식 2025년 3월 27일(목)
- 작품전시 2025년 3월 27(목)~4월 1일(화)까지
- 시상내역

- ▶ 금상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0,000원
- ▶ 은상1점 제천시시장 상장 및 상금 500,000원
- ▶ 은상1점 제천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500,000원
- ▶ 동상3점 예총 제천지회장 상장 및 상금 200,000원
- ▶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부장 상장
- ▶ 입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부장 상장 (총 풀품작 수의 20%이내-입상작 포함)



### 기타사항

- 입상, 입선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상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수상작을 향후 10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동일작품, 유사작, 기발표작으로 판명될 시 상권이 취소되며 시상금은 반환, 회원은 징계조치되며 비회원은 7년간 입회 불허함.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증정.
- 입선 및 입상작은 심사 발표 후 7일 이내에 원본 파일을 지정된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otterkang@naver.com)
- 상금 원천징수액 세금 및 수수료 발생할 경우 공제후 지급.
-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분쟁, 표절문제 발생시, 모든 문제는 응모자 책임으로 함.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의 결정에 따른다.

■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부 ■ 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제천시 / 제천시의회 / 제천 문화재단 / 제천예총

# 2025 제39회 창원 전국 사진공모전

CHANGWON NATIONAL PHOTO CONTES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에서는 고향의 봄 축제 일환으로 제39회 전국사진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작품은 하나하나 소중하게, 공정한 공개 심사로 하겠습니다.

<b>작품내용</b>	자유작 (유사작 및 합성사진으로 판명될 시 취소함)	<b>심사일시</b>	2025년 4월 6일(일) 오후1시
<b>응모자격</b>	전국사진 애호가	<b>심사장소</b>	창원문화원 지하2층 공개 심사
<b>작품규격</b>	11" x 14" 사진 (흑백 또는 컬러) 4점 이내	<b>심사발표</b>	2025년 4월 7일 이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및 사협 창원지부 홈페이지 게재 (www.paskcw.net)
<b>출품사항</b>	작품 뒷면에 성명, 제목,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기재	<b>전시일시</b>	2025년 5월 6일 ~ 5월 12일
<b>응모기간</b>	2025년 4월 4일(금) 도착분	<b>전시장소</b>	성산아트홀 제1전시장
<b>접수료</b>	1인당 2만원	<b>시 상 식</b>	2024년 5월 7일(수) 오후 6시 30분 성산아트홀 제1전시장
<b>접수처</b>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39번길 19-22 (용호동,창원문화원) 4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 (우 51431) 지부장 010-3561-4772 / 사무국장 010-2845-0414		

## 시/상/내/역

<b>금상 1명</b>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b>가작 5명</b>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및 부상
<b>은상 2명</b> : 한국예총 창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30만원	<b>장려 5명</b>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b>동상 3명</b>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10만원	<b>입 선</b> : 총 출품자의 20%이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장 상장

## 기/타/사/항

- **저작권/저작물 이용** : 입상·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후원측은 수상작에 한해 향후 5년간 복제·배포·전시·공중송신·도서출판 등 공익사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수상이 취소되며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사협입회유보, 초상권은 출품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 불참시 상금·부상은 불우이웃돕기 기탁합니다. (대리 수상 가능)  
- 컴퓨터그래픽, 지나친 색상 조정은 입상 취소됩니다.
- **특별사항** : 작품집을 출품자 전원에게 보내 드립니다. / 사협 입회 점수 있음.
- **작품반출** : 낙선작은 전시 종료 후 개별 반송함

주최 : 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

후원 : 창원특례시, 한국예총 창원지부,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지회, Canon 캐논 창원점, 서울이비인후과



## 제40회

# 마산 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2025년 4월 25일(금) 도착분**

- **작 품 내 용** : 미 발표적으로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작품
- **작 품 규 격** : 컬러 및 흑백 11"X14" (장정불요, 테두리 불요)
- **출 품 요 령**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 우편번호, 성명, 전화번호 필히 기재
- **출 품 료** : 20,000원 출품 수 4점 이내
- **접 수 처** : 51793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 1길 43-17 권영주 사진연구실  
(지부장 : 010-8765-9005)
- **접 수 마 감** : 2025년 4월 25일(금) 도착 분에 한함
- **심 사** : 2025년 4월 26일(토) 마산사진회관(오후1시 이후)
- **발 표** : 2025년 4월 28일(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게재
- **전시및장소** : 추후 발표
- **시상및장소** : 추후 발표
- **시 상 내 역** :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상금 100만원  
은상 2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마산지부장상 상금 각 30만원  
동상 3점 : 한국예총마산총연합회장상 상금 각 10만원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마산지부장상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마산지부장상  
입선 : 출품작품수의 20%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마산지부장상.
- **기 타** : 1.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함.  
2. 수상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있으며 주최측은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낙선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3. 입상작은 작품파일을 5일 이내에 주최측에 제출하여야 함.  
주최측 메일: photoms60@naver.com  
4. 유사작 및 동일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취소는 물론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사협 입회자격이 유보 됨.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마산지부

후 원 창원특례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마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화가 생활이 되고,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 당진”

# 제21회 당진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 2025. 3. 20.(목) 당일소인유효(입회점수 : 있음)

(사)한국사진작가협회당진지부에서는 제21회 당진전국사진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사진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요령

- 출품자격** 제한없음
- 출품료** 1인당 20,000원
-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작으로 국내외 미발표 작품
- 작품규격** 흑백 및 컬러 11" × 14"에 한함(패널불요)
- 출품수** 1인당 4점 이내
-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기입
- 접수 기간 및 마감일** 2025년 2월 10일 ~ 3월 20일(목) 까지 당일소인유효
- 접수처** (우. 31776)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172  
(사) 한국사진작가협회당진지부  
지부장 010-5432-5656/사무국장 010-3398-4499  
TEL. (041)357-4567, FAX. (041)357-4567

## 심사

- 심사일시** 추후
- 심사장소** 당진문예의 전당 전시관 예정
- 심사방법** 공개심사
- 심사발표** 2025년 3월 27일 예정(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게재)
- 시상내역**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상장 및 상품(해나루쌀 30kg 1포)  
은상 2점 - 당진시장 · 당진시의회의장 상장 및 각 상품(해나루쌀 20kg 1포씩)  
동상 3점 - (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 및 각 상품(해나루쌀 10kg 1포씩)  
가작 5점 - (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  
장려 5점 - (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  
입선 (사)한국사협당진지부장 상장(출품수 20% 이내, 입상작 포함)
- 전시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 전시기간** 4월 중 예정

## 기타사항

- 작품반출** 입상, 입선 작품은 본 지부에 귀속되며, 낙선작품은 작품집과 함께 개별 반송함.
- 기 타**
  - 출품자 전원에게 컬러 작품집 증정.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선정된 작품은 당진시와 사협 당진지부에서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기발표된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 될 경우 상권이 취소 됨은 물론 상장을 즉시 반환, 회원은 징계하며 비회원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자격이 7년간 유보됨.

주최·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당진지부

후원 | 당진시 당진문화재단 당진문예의전당 한국사진작가협회